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92호 【루계 제25235호】 주체105(2016)년 4월 1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흥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흥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용원동지, 홍영칠동지, 김창봉동지, 정승일동지, 윤동현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또다시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지니게 된 신흥기계공장의 로동계급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5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영웅적헌신과 눈부신 기적창조로 날과 날을 이어가고있는 온 나라 인민의 힘찬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며 신흥기계공장의 로동계급들도 70일전투의 철야진군길에서 자랑할만 한 성과들을 이룩해가고있다.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새로 개발할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전투적과업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신흥기계공장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뚫고나감으로써 당에서 준 영예로운 임무를 빛나게 수행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인사를 나누시고 새로 개건한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러차례나 찾아오시여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신흥기계공장의 발전력사속에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아로새겨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시된 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을 보시면서 신흥기계공장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손길아래 나라의 공업화를 실현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는 굳지의 기계제작기지로 장성강화되였다고, 이 공장은 지난 기간 당의 경제건설로선을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능률높은 기계설비들을 팡팡 만들어냄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해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신흥기계공장에서 혁명사적교양실을 통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에 대한 교양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진행하여 공장로동계급들이 자기들을 그처럼 사랑하고 내세워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경제강국건설의 개척자, 척후병들답게 높은 기계설비생산실적으로써 당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충정다해 관철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립직장, 가공직장, 단조직장 등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새 제품개발 및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들이 당에서 준 과업대로 성능이 높은 새로운 기계설비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공장에서 만든 능률이 높은 기계설비들이 정말로 마음에 든다고,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을 도입한 결과 현실에서 커다란 은이 나타날수 있게 제품의 질이 훨씬 높아졌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공장에서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여러종의 다기능화된 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개발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기계공업발전에서 중요한것은 교조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공장에서는 기계설비들에 대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게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맡겨진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할뿐만아니라 질적측면에서 세계적수준을 돌파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경제강국건설에서 신흥기계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우리나라 기계공업부문을 선도해나갈수 있도록 공장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문명국의 제모에 맞게 현대화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반적인 생산공정과 경영활동의 현대화,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데 대한 문제, 현대화 전망계획을 바로세우고 선후차를 명백히 가르며 핵심공정들부터 일신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데 대한 문제, 종업원들이 현대과학기술을 습득할수 있도록 과학기술보급기지를 잘 꾸릴데 대한 문제, 로동자들에게 보다 훌륭한 로동조건과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릴데 대한 문제 등 공장을 일신시키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신흥의 로동계급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부닥치는 난관을 맞받아 뚫고 헤치며 전세대들의 굴함없는 투쟁정신을 이어받아 자기들앞에 맡겨진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온 나라 이르는 곳마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같은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남들이 보란듯이, 세상이 부러움게 자력자강으로 이 땅우에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충정심이 낳은 자랑찬 결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대중의 앙양된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기 위한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북소리를 힘있게 울려 그들이 충정의 70일전투철야진군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도록 적극 고무추동함으로써 자랑스러운 위훈이 기록된 전투기록장을 안고 당 제7차대회장에 뜻뜻이 들어서게 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신흥기계공장의 전체 종업원들은 머나먼 자기들의 일터에 또다시 찾아오시여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사 설

청년들은 70일전투의 철야진군에서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해나가자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민족사적인 륙대사변들로 세계를 진감시키며 천하제일강국으로 솟구치는 우리 조국은 젊음으로 약동하고 비약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이다.

백두전역을 비롯한 대고조격전장마다에서 청년전위들의 용솟음치는 열정과 투지, 용맹이 새로운 영웅청년신화,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로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심심산중의 발전소건설장과 공장, 기업소, 사회주의협동벌, 수천척지하막장과 흉망사나운 날바다, 과학연구기지를 비롯하여 조국땅 그 어디서나 시대를 격동시키는 열혈청춘들의 미덥고 장용한 모습을 볼수 있다.

새로운 영웅청년신화창조로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선물을 마련하자, 이것이 계속전진, 계속혁신, 련속공격의 기상으로 70일전투의 철야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수백만 청년전위들의 철석같은 의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청년강국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조국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이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선봉대, 돌격대이다. 강성할 래일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을 따라 오직 곧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더욱 앞당겨지게 된다. 청춘의 기백이자 조국의 기상이고 청년대오의 전진속도이자 백두산대국의 힘찬 활력이다.

당의 부름에 산악같이 일떠서 조국청사에 불멸할 금별의 위훈을 새기여가는것은 우리 청년들의 특질이다. 만리대공에 주체위성을 장쾌하게 솟아올리고 거창한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보란듯이 일떠세우며 사회주의조국을 금성철벽으로 지켜가는 미덥고 끌끌한 청년대군이 있기에 우리의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고 우리 혁명은 승승장구하고있다. 사상과 신념의 강자, 창조의 거인, 견결한 조국수호자, 여기에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조선청년들의 진모습이 있다. 인생에 한번밖에 없는 귀중한 청춘시절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영웅적투쟁과 헌신적복무로 수놓아가는 청년들은 이 세상에 오직 우리 청년들밖에 없다.

충정의 70일전투는 천만의 피끓는 심장으로 조선로동당의 령도적권위를 백방으로 보위하는 결사전이며 극악무도한 도발망동을 부리며 최후발악하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과의 치렬한 대결전이다. 지금이야말로 당의 청년중시정치에 떠받들려 청년강국의 주인공,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자라난 조선청년들이 과연 어떤 훌륭한 젊은이들인가를 온 세상에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혁명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우리 청년들의 위치는 전진하는 대오의 전렬이고 투쟁방식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이며 목표는 새로운 영웅청년신화의 창조이다. 청년들은 백두의 칼바람에 몸을 말고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달리며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로 적대세력들에게 무서운 철추를 내리고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맞이하여야 한다.

새로운 영웅청년신화의 창조, 이것은 령도자와 사상과 뜻, 발걸음을 같이하는 우리 청년들의 열화같은 충정심의 정화이다.

령도자의 사상과 뜻, 발걸음은 거창한 세기적변혁을 안아오는 승리의 기치이고 원동력이다. 령도자와 함께라면 기쁨도 시련도 영광이라는 절대적충정에서 만난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 나오고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는 담대한 배짱이 생긴다.

지금 백두전역에서는 당앞에 결의다진대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을 당 제7차대회전으로 무조건 완공하기 위한 돌격대원들의 불굴의 정신력과 결사의 투쟁에 의하여 흐르는 분과 초가 그대로 기적과 위훈으로 이어지고있다. 높고 험한 심산계곡에 솟아오른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언제는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충직하게 받드는 우리 청년전위들의 사상과 신념의 결정체이고 불타는 애국충정심의 루적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심은 곧 과학이고 실천이며 승리이라는 우리 청년들의 신념은 억척불변이다. 당중앙과 운명의 피줄을 잇고 사상과 뜻, 발걸음을 같이하는 우리 청년들의 심장은 엄혹한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안고 원수님의 혁명시간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위훈의 자욱자욱을 수놓아가는 청년대군이 있기에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번지고 백두산대국의 창창한 미래를 예고하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게 될것이다.

새로운 영웅청년신화의 창조, 이것은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으로 승리의 진격로를 열어나가는 우리 청년들의 불굴의 의지의 과시이다.

곧바로의 정신, 드세찬 공격정신, 자력자강의 정신이 나래치는 곳마다에서 청년들의 혁명성과 영웅적희생성, 열렬한 애국심이 응축된 청춘대기념비들이 훌륭히 일떠서고있다. 천지의 맑은 물처럼 순결하고 백두의 이깔처럼 강직한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은 우리 나라 청년운동의 귀중한 재보이며 청년들을 시대의 영웅, 불굴의 투사들로 키우는 사상적량식이다.

더운 피 펄펄 끓는 청춘들이 살며 일하는 그 어디서나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이 약동하고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청년돌격대원들이 석탄생산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고있다. 경공업부문의 청년들이 다추다기대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리고 작업시간을 늘여 년간계획, 상반년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으며 날마다 생산실적을 올리고있다.

우리 당은 수백만 청년대군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세계를 압도할 휘황한 설계도를 펼치고있으며 당중앙의 구상을 실현하는 만리마시대 대격전장들의 앞장에서 청년돌격정신의 창조자, 체현자들이 질풍노도쳐 내달리고있다. 온 나라에 《물불을 가리랴, 당의 부름에 !》라는 애국충정의 웨침이 힘차게 울려퍼지고 완강한 공격전의 기상이 나래치고있다.

청년돌격정신으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당중앙이 그어준 승리의 화살표를 따라 초음속비행기의 속도로 맹렬히 돌진하는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세상에 없다.

새로운 영웅청년신화의 창조, 이것은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만장약하고 사회주의조국을 결사수호해나가는 우리 청년들의 강의한 신념의 분출이다.

우리 청년들은 당의 혁명사상과 함께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닌 혁명의 계승자, 계급의 전위투사들이다. 백만자루, 천만자루의 총도 이기지 않는 어머니당의 끊임없는 교양과 극진한 보살핌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조국과 인민을 뜨겁게 사랑하는 참된 애국자로,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을 안은 복수자들로 성장하였다. 로동당시대의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에는 멸적의 기세드높이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켜온 우리 청년들의 고귀한 피땀이 스며있고 조국의 천리방선초소들에는 계급의 총대로 원쑤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안긴 혁혁한 군공들이 새겨져있다. 높은 계급적자각과 열렬한 조국애에 뿌리를 둔 우리 청년들의 무비의 영웅성과 용감성은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안아오고있다.

오늘 조선반도는 자주와 예속,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정의와 부정의와의 첨예한 대결장으로, 핵전쟁의 불구름이 항시적으로 떠도는 일촉즉발의 열점지역으로 되고있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드리는 가장 큰 영웅청년신화는 곧 반제계급전선에서의 승전고, 조국통일대전의 축포성이며 청년대군의 무쇠주먹만으로도 얼마든지 극악무도한 원쑤들을 적멸소탕하고 민족의 숙원을 성취할수 있다는것이 우리 청춘들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우리의 근로청년들과 대학, 고급중학교 학생들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중대성명에 접하여 인민군대입대와 복대를 열렬히 탄원하고 최후발악하는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의 무모한 도발광기를 생산적앙양의 불길, 거세찬 학습열풍으로 쓸어버리고있다. 만약 침략의 무리가 감히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 용감무쌍한 수백만 청년들은 《전선행렬차》의 노래 높이 부르며 남반부해방의 길에 제일먼저 오를것이며 이 땅우에 새로운 영웅청년신화, 전승신화를 긍지높이 창조할것이다.

우리의 수백만 청년들은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 청년강국의 주인공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심장깊이 새기고 세인을 놀래우는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해나감으로써 위대한 김정은시대 청년대군의 혁명적기개와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며 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충정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백두산청년강국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청년들은 한명만세를 높이 부르며 수령결사옹위의 전통을 창조한 혁명의 첫 세대들처럼, 당과 수령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친 리수복, 조군실세대처럼, 령도자만을 굳게 믿고 사회주의조국을 믿음직하게 지켜낸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의 청년들처럼 당중앙을 결사보위하는 천연요새가 되여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수령결사옹위의 영웅신화를 창조해나가야 한다. 청년전위들은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이 조금이라도 움쩍한다면 500만의 핵폭탄이 되여 리성도 상식도 모르는 사악한 무리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여야 한다.

새로운 영웅청년신화창조의 원천은 령도자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이다. 조선로동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이면 우리는 지구도 든다, 이것이 우리 청년들의 철석의 신념이다. 청년들은 청년중시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대경륜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청년전위가 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사랑을 값높은 재부로 받아안고 영웅청년신화창조로 당의 절대적인 존엄과 권위, 필승불패성을 만방에 높이 떨쳐야 한다. 위대한 믿음과 사랑이 낳는 무한대한 힘으로 백두산대국의 총진군을 더욱 힘있게 떠밀며 애국충정의 땀방울로 청춘대기념비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일떠세워야 한다. 용감한 돌진력과 질풍같은 속도로 날마다, 시간마다 대비약의혁신을 일으키며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청년전위들의 가장 고귀한 충정의 선물로 훌륭히 일떠세워야 한다.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이며 우리 당의 투쟁방식은 백절불굴의 공격전이다. 우리 조국과 인민이 맞이한 모든 승리와 영광은 위대한 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으로 빛나고있다.

청년들은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 이어놓고 경애하는 원수님과 사상과 숨결, 발걸음을 같이하며 우리 당의 공격적인 혁명사상을 만장약한 선봉대, 돌격대가 되여야 한다. 공격형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행군시간에 애국의 초침을 맞추고 진격의 나팔소리, 북소리를 높이 울리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공격, 공격 또 공격해나가야 한다. 맞받아나가는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안일과 해이, 소극과 보수를 비롯하여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잡사상, 잡귀신들을 단호히 쓸어버리고 청춘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청년강국의 기상과 본때를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를 힘차게 부르며 5월의 결승선을 향하여 만리마속도로 기세드높이 내달려야 한다.

자강력제일주의와 과학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기적은 하늘이 주는 우연이 아니라 자강력이 안아오는 필연이다. 청년들은 자기 힘을 믿고 일떠설 때 뚫지 못할 난관, 점령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으며 자강의 길에 자주적존엄이 있고 강성번영이 있다는 철리를 심장깊이 새기고 자강력제일주의를 더욱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수입병을 근원적으로 없애며 자기 부문, 자기 단위를 자력자강으로 추켜세우는 굳센 의지의 소유자, 체현자가 되여야 한다. 이 땅의 모든 재부들을 귀중히 여기며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보여주는 자랑찬 성과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해나가야 한다.

과학기술중시에 새로운 영웅청년신화창조의 지름길이 있다. 모든 청년들은 새해의 첫문을 과학으로 열고 주체과학의 신비한 힘으로 우리 인민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거듭 안겨주는 위대한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야 한다. 위성연구집단의 젊은 과학자들처럼 세계적안목과 대국적자존심으로 두뇌전, 기술전, 실력전을 맹렬하게 벌려 제국주의자들의 과학기술적우세를 산산이 짓부셔버리는 최첨단돌파의 선구자, 패권자가 되고 실천가형의 기술인재, 집단의 보배가 되여야 한다. 누구나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과학기술보급실들을 적극 리용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쟁쟁한 실력을 갖추며 당 제7차대회를 높은 과학기술적성과들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 총매진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의 역할을 비상히 높여나가야 한다.

청년동맹조직은 청년들을 당의 사상과 위업의 견결한 옹호자,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는 정치조직이다. 청년동맹안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과 명령지시를 몸이 열조각, 백조각이 나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5대교양을 참신하게, 공세적으로 벌리고 모든 청년들이 선군시대 청년돌격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부강조국건설의 전구들마다 새로운 영웅청년신화창조로 부글부글 끓어번지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운동사적관을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고 청년미풍선구자들을 널리 소개선전하여 모든 동맹원들을 전세대 청년전위들의 자랑스러운 투쟁전통을 꿋꿋이 계승하고 고상한 정신세계와 도덕을 지닌 시대의 영웅, 창조의 거인, 훌륭한 젊은이들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나가야 한다. 청년동맹일군들은 청년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불러일으키는 군중교양의 능수, 청년들에게 기적창조와 영웅적위훈의 나래를 달아주는 믿음직한 정치일군이 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청년동맹조직들이 자기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힘껏 떠밀어주며 청년교양에 품을 들이고 청년들이 활개치며 금별의 위훈을 세울수 있도록 각방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용솟음치는 젊은 힘이 총폭발할 때 불가능이란 없으며 그 어디서나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들이 창조되게 된다.

미덥고 끌끌하며 강용한 천하무적의 청년대군이여, 모두다 오늘의 총진군대오의 앞장에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기발을 펄펄 휘날리며 승리의 5월을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자.

청년대강국의 불패의 상징으로 솟아오른 백두대지의 청춘언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언제공사 빛나게 결속

【평양 3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위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충정의 70일전투의 철야진군이 힘차게 벌어지는 격동적인 시기에 백두대지에서 청년강국의 주인공들이 자랑찬 승전포성을 터쳐올리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로력적선물인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을 당이 정해준 기간까지 무조건 끝낼 결사의 각오안고 승리의 직선주로를 따라 폭풍쳐 달려온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이 언제공사를 기한전에 앞당겨 끝내는 빛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주체105(2016)년 3월 31일, 발전소언제공사가 성과적으로 결속되는 력사의 순간을 앞두고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이 앞을 다투어 언제우로 달려올라왔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하늘같은 믿음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천만시련을 맞받아 진군해옴으로써 승리의 개가를 높이 울리게 된 이들의 가슴속에 뜨거운 격정이 끓어올랐다.

전체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이 지켜보고있는 가운데 마지막구간의 사석다짐과 장석쌓기로 언제공사가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정각 10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이 혁명의 수도 평양의 하늘가를 우러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언제공사가 끝났음을 삼가 보고드리였다.

꿈결에도 그리운 경애하는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린 무한한 감격에 넘쳐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이 서로서로 얼싸안고 목메여 터치는 격정의 만세소리가 백두대지를 진감하며 울려퍼졌다.

북방의 엄혹한 대지우에 석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또 하나의 수력발전소언제를 훌륭하게 일떠세운것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억세게 자라난 청년강국의 주인공들만이 창조할수 있는 영웅서사시이며 10년을 1년맞잡이로 주름잡아 질풍노도쳐가는 영웅조선의 대비약이 안아온 일대 장거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총진군대오의 전렬에 내세워 강성국가의 문패를 남먼저 달게 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로 기어이 완공하려는 일군들과 청년돌격대원들, 건설자들의 결사관철의 기상이 나래치고 경제선동의 북소리, 중기계들의 동음소리 높이 울리는 언제건설장은 낮이나 밤이나 대격전장처럼 들끓었다.

현장련합지휘부와 각 려단의 일군들은 대중속에 들어가 정치사상사업을 침입식으로 진행하면서 모든 전투원들을 만리마시대를 대표하는 시대정신을 창조, 창출하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켰다.

발전소건설의 주타격대상인 언제공사장에 좌지를 정한 일군들은 로력과 중기계배치를 합리적으로 하고 과학적이며 효률적인 건설공법을 적극 받아들여 공사를 립체적으로, 전격적으로 내밀었다.

청년들이 들끓어야 온 나라가 들끓고 청년들의 발걸음이 빨라야 부강할 미래가 앞당겨지게 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깊이 새긴 백두청춘들은 작렬하는 폭약과 같은 드세찬 공격정신과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와 열정으로 만난을 극복하며 질풍같은 속도로 공사를 진척시켰다.

선행공정을 담당한 높은 책임감을 안고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 운수대대 굴착기운전수들과 자동차운전사들은 열흘이라는 짧은 기간에 언제콩크리트축벽타입을 위한 1만여㎥의 기초굴착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며 언제건설의 첫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언제의 상하류를 담당한 평안북도, 황해북도려단사이의 사회주의경쟁열풍속에 열흘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가물막이공사가 성과적으로 결속되고 지난 1월 13일부터 언제축벽타입과 본체쌓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였다.

우리 나라 수력발전소건설력사상 가장 불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극복해야 하는 엄혹한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백두청춘들의 용감성과 창조력을 과시하며 언제가 솟아오르기 시작하였다.

《가리라 백두산으로》, 《타오르라 우등불아》를 비롯한 투쟁과 위훈에로 고무추동하는 노래소리, 꽹재미대와 장석질통을 지고 달리며 《결사관철》을 웨치는 청춘들의 힘찬 목소리, 발구름소리가 백두산악을 진감하였다.

돌격대원들은 뼈속까지 얼어드는 북방의 혹한속에서도 끓는 피로 혼합물을 이기고 보온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한편 일정계획을 150%이상으로 넘쳐 수행하며 콩크리트축벽타입을 빠른 속도로 내밀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련이은 대성공소식에 접한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은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공사를 박력있게 밀고나갔다.

함경남도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이 수천㎡의 보온덮집을 단 2일만에 건설하고 콩크리트축벽타입공사를 드세게 내밀고있을 때 황해북도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은 장석쌓기를 적극 따라세웠다.

세차게 타오르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 청년돌격대원들은 많은 로력과 자재를 절약할수 있는 막돌련직방법과 합리적인 보온덮집가설 등 새로운 기술혁신안과 합리화안을 적극 받아들여 공사실적을 확대하였다.

충정의 70일전투의 철야진군에로 부른 당중앙의 전투적호소를 받아안은 현장련합지휘부 일군들과 청년돌격대 지휘관들, 돌격대원들은 목표를 더욱 높이 세우고 드센 공격전을 벌려나갔다.

현장련합지휘부의 치밀한 작전과 지휘에 따라 집중투하, 련속공격의 방법으로 진행된 언제콩크리트축벽타입전투는 함경남도려단을 비롯한 모든 전투단위들사이의 사회주의경쟁속에 더욱 맹렬하게 전개되였다.

청년돌격대원들은 혼합기를 전혀 쓸수 없는 불리한 지대조건속에서도 결사관철을 체질화한 백두청춘들에게는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 배짱을 지니고 높이 세운 전투계획을 2배, 3배로 넘쳐 수행하며 질풍같이 내달려 콩크리트축벽타입을 3월 24일에 완전결속하였다.

축벽타입과 함께 본체쌓기전투장에서도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적인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는 속에 3월 19일부터 24시간동안에 1만 2 000여㎥의 언제본체쌓기를 진행하는 놀라운 기적이 창조되였다.

전반적공사가 60%계선을 넘어섰을 때 축벽타입과 함께 장석쌓기공사의 큰 짐을 스스로 걸머진 함경남도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이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면서 공사를 대담하고 절패있게 내밀었다.

언제의 폭이 좁아져 운수기재가 동원될수 없는 조건에서 현장련합지휘부의 결심에 따라 진행된 한차례의 철야돌격전에 의해 마지막 3 500여㎥의 사석운반이 11시간동안에 결속됨으로써 본체쌓기의 마감을 빛나게 장식하였다.

당을 옹위하는 천군만마가 되여 폭풍쳐 내달리는 백두청춘들의 영웅적기상은 로동계급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남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로동계급은 시추구멍뚫기와 장막주입을 제때에 따라세워 전반적공사에 활력을 부어주었다.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과 8.28청년돌격대관리국, 각 도 자동차수송경쟁에 참가한 운전사들이 구배가 심한 산악조건을 극복하며 긴장한 철야수송전투를 벌려 공사에 필요한 각종 물동들을 신속히 운반하였다.

평양철도국, 청진철도국, 륙해운성안의 수송전사들도 전선에 총포탄을 나르는 심정으로 수송전투에서 혁혁한 위훈을 세움으로써 백두청춘들의 과감한 돌격전을 적극 고무하였다.

성, 중앙기관과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뜨거운 지원의 마음이 백암전역의 대격전장으로 물밀듯이 달려왔다.

백두의 칼바람에 몸을 말고 세월을 주름잡으며 만리마속도로 내달려온 열혈청춘들의 맹렬한 총공격전과 온 나라 인민의 지성에 떠받들려 마침내 3월 31일 언제정점우에 승리의 기발이 휘날리게 되였다.

당이 정해준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폭풍쳐 내달려온 백두의 열혈청춘들의 견인불발의 투쟁에 의하여 언제공사가 기한전에 빛나게 결속됨으로써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훌륭히 완공할수 있는 승리의 돌파구가 마련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의 전체 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의 불같은 애국충정과 무비의 헌신성에 의하여 발전소완공의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념원 뜻깊은 4월과 더불어 활짝 꽃펴난다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만경대

충정의 70일전투의 날과 날이 흐르는 우리 조국땅에 4월의 첫아침이 밝아왔다.

경사로운 4월을 축복하듯 하늘은 류달리 청청하게 열리고 대지엔 봄기운이 약동한다.

뜻깊은 이 시각 주체의 태양을 따르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과 마음이 만경대고향집으로 끝없이 달리고있다.

70일전투의 나날의 자랑찬 성과를 안고 고향집뜨락으로 들어서는 사람들의 숭엄한 발걸음과 빛나는 눈동자, 얼굴에 넘쳐나는 뜨거운 경모의 정…

만경대고향집!

만경대의 추녀낮은 이 고향집을 떠나서 어떻게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한평생의 영광찬란한 력사에 대하여 말할수 있겠는가. 지난날 우리의 농촌마을 그 어디에서나 볼수 있었던 수수한 이 고향집을 떠나 오늘 이 땅에 펼쳐진 무수한 창조물들과 나날이 꽃펴나는 인민의 만복을 어떻게 생각할수 있겠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만경대는 반만년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어버이수령님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신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이며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은 태양의 성지, 혁명의 성지입니다.》

만경대의 추녀낮은 초가집, 오늘도 사립문이 열려져있는 그 자그마한 뜨락으로 우리는 숭엄히 들어선다.

10년이 열번 지나고 네해가 되여오건만 이 초가집만은 조금도 달라진것이 없다.

옆에는 웅장한 광복거리, 만경봉아래 굽이치는 대동강기슭과 쑥섬에는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이 황홀하게 펼쳐져있다.

이 모든것과 대조되는 초가이영의 옛집은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있는가.

멍석과 풀메, 쭈그러진 독과 색날고 닳아진 장농 …

이 나라의 수수하고 평범했던 이 집은 100여년전 조선의 모습을 생생히 간직하고있다.

유구한 력사와 풍요한 자연부원, 수려한 산천경개를 자랑하던 우리 강토는 일제의 군화와 대포바퀴밑에서 짓이겨졌고 인민은 국권을 강탈당한 슬픔과 분노로 치를 떨었다.

조선은 말그대로 일제의 쇠사슬에 칭칭 감기여 사람 못살 생지옥으로 되였다.

이 암흑의 세상에 광명을 줄 천출위인을 부르는 우리 겨레의 목소리는 민족수난의 그 세월 얼마나 절절하게 울려퍼졌던가.

온 민족이 몸부림치며 빼앗긴 조국을 되찾아줄 위인의 출현을 목마르게 기다리던 주체1(1912)년 4월 15일, 우리 수령님께서 만경대의 추녀낮은 초가집에서 탄생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이는 우리 인민의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대통운이였으며 대경사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탄생하심으로써 우리 민족의 운명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주체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던것이다.

너무도 가난하고 너무도 소박한 만경대초가집, 바로 여기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이 당하던 추운 고생, 배고픈 고생, 식민지망국노의 쓰라린 아픔 등 온갖 수난을 다 겪으시였고 간악한 일제의 총칼밑에 신음하는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가슴터지도록 목격하시였다.

력사의 그 나날과 더불어 우리 수령님께서 나라잃은 민족의 설음과 고통을 뼈에 사무치게 느끼시며, 빼앗긴 조국을 찾고야말 굳은 맹세 다지시며 걸고걸으신 혁명의 험준한 길은 그 얼마였던가.

《무장은 우리의 생명이다! 무장에는 무장으로!》라는 피끓는 애국의 호소로 백두산아래 반일항전의 총검이 번뜩이게 하시며 20대초부터 백두산천출명장으로 이름떨치시고 30대초에는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항일의 전설적영웅 김일성동지.

아버님의 원수, 일가의 원수, 조선민족의 원쑤를 갚기 위해 사생결단을 해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다지시며 만경대를 떠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이라는 크나큰 위업을 이룩하시고 고향집사립문에 들어서시였다.

뜻깊은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의 얼굴도 그려보시였고 은인들도 생각하시였으며 어린시절도 추억하시였고 앞으로 건설하게 될 새 조국의 미래도 설계해보시였다.

만경대고향집에서 시작된 주체100여년사는 얼마나 위대한 사변들로 엮어져있는것인가.

해방후 지체없이 당창건과 국가건설위업을 실현하시고 우리 혁명무력을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여지없이 깨뜨려버리시고 우리 민족의 존엄과 영웅적기상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두 단계의 사회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시여 이 땅우에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시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였다. 력사의 온갖 도전과 난관을 거창한 창조와 번영의 열풍으로 길들이시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용을 온 세상에 자랑높이 떨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천만년세월이 흐른들 우리 어찌 잊을수 있으랴.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방침과 로선을 제시하시고 단 한번의 로선상착오나 탈선도 없이 우리 혁명을 오직 주체의 궤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우리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

여기에는 그이의 끝없는 사색과 실천, 그이께서 세우시는 모든 로선과 정책의 초석으로 되는 하나의 진리가 빛발치고있다.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 진리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한다!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라!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그이께서는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시여 혁명투쟁을 벌리시는 실천투쟁과정에 소박하고 평범한 인민대중이 혁명적으로 각성되기만 하면 큰 힘을 발휘할수 있으며 그 힘에 의거하면 아무리 어려운 조건에서도 능히 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할수 있다는 진리를 터득하게 되시였다.

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의 요구를 환히 꿰뚫어보시고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님.

한평생 인민을 믿고 인민들속으로 들어가시여 그들을 의식화, 조직화하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신 그이의 심혈과 로고의 나날은 끝이 없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총대로 개척되고 총대로 백승을 떨쳐온 우리 혁명의 전력사적과정은 인민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 전설같은 헌신의 서사시로 광휘롭게 엮어져있다.

진정 우리 수령님은 동서고금이 알지 못하는 위대한 혁명가이시며 세인을 놀래우시는 창조와 건설의 영재,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신 우리 인민의 영광과 행복, 크나큰 긍지와 자부는 하늘의 높이에도, 바다의 깊이에도 비길수 없다.

한 나라, 한 민족에게 있어서 대통운이라는 말은 민족성원모두의 운명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력사적사변을 상징하는 말이다.

뜻깊은 태양절을 마중해가는 우리 천만군민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함께 4월이 안고있는 그 심원한 의미를 더더욱 가슴에 새겨안는다.

민족대통운, 대경사의 4월이 있어 이 나라의 만복이 시작되였고 또 한분의 희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4월의 봄은 영원히 꽃펴나는것이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모시였기에 우리 민족의 행복과 번영의 년대기가 펼쳐지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오늘의 선군조선이 있으며 보다 휘황찬란한 강성조선의 래일이 확고히 약속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우리 인민은 만경대와 더불어 천만년 복락을 누려갈것이며 우리 조국은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세계에 눈부시게 빛날것이다.

글 본사기자 강철남
사진 본사기자 한광명

뜻깊은 사적물이 전하는 이야기

짧아진 지게다리

만경대고향집에는 김보현할아버님께서 리용하시던 지게가 소중히 보존되여있다.

참관자들 누구나가 류다른 지게를 보며 쉬이 눈길을 떼지 못한다. 보통지게와는 달리 다리가 짧은것이다.

한생을 농사일로 사신 김보현할아버님께서는 해방후 70고령의 년로하신 몸이였지만 굽으신 등에 많은 짐을 지기 위해 지게다리를 짧게 잘라 사용하시였다.

어느해인가 아드님이신 김형록선생님께서는 아버님께 이렇게 지게를 지고 나무하러 나가시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할수 있다고 말씀올리시며 지게를 몰래 감추어놓으시였다.

그때마다 김보현할아버님께서는 감추어놓은 지게를 찾으시여 나무도 해오고 진거름도 나르며 부지런히 일을 하시였다.

참으로 김보현할아버님께서는 한 나라 령도자의 조부이시였지만 그 어떤 특전이나 대우도 바라지 않으시고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돌보시는 나라일이 잘되기만을 바라시며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수수한 정백성으로 농사일을 하시였다.

다섯되박들이로 된 돌절구

만경대고향집뜨락에 들어서면 오늘도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이 울리시던 돌절구소리가 들려오는듯싶다.

모진 시련과 가난의 그 세월속에 두되박들이가 다섯되박들이로 된 돌절구.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온 가정이 달라붙어 기를 쓰고 일했지만 늘 죽도 변변히 우리지 못하였다고, 껍질도 벗기지 않은 수수로 타개죽을 쑤어먹군 하였는데 목안이 깔깔해서 넘어가지 않던 일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만경대시절을 추억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회고의 교시가 우리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준다. 끼니마다 상에 오른것은 목안이 깔깔한 수수타개죽, 그토록 가난한 집이였건만 돌절구에 인정은 얼마나 넘쳐흘렀던가.

만경대혁명일가분들께서는 생활이 몹시 어려우시였지만 이웃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 아끼지 않으시였다.

정녕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의 근면성과 마을사람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숭고한 인덕미는 다섯되박들이로 된 돌절구에도 뜨겁게 슴배여있다.

없어진 솥뚜껑손잡이

어느 가정에서나 멋시있고 보기 좋은 부엌세간들은 생활의 기쁨으로 되고있지만 여기 고향집부엌의 손잡이 없는 솥뚜껑은 오늘도 가슴저미는 사연을 눈물겹게 전하여주고있다.

슬하의 많은 자손분들을 혁명의 길에 내세운것으로 하여 만경대고향집에 대한 일제원쑤들의 탄압과 박해는 극도에 달하였다.

악랄한 원쑤놈들은 돈궤치를 내보이며 일가분들을 회유하다 못해 고향집에 달려들어 가택수색을 하고 집세간을 들부시며 행패질까지 하였다.

일제놈들의 거듭되는 폭행과 만행속에 고향집부엌의 솥뚜껑손잡이마저 떨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계시였기에 만경대혁명일가분들께서는 원쑤들의 그 어떤 박해와 고초, 모진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적들과 그처럼 당당히 맞설수 있었으며 마침내 해방의 날을 맞으실수 있었던것이다.

본사기자

▷ 수 필 ◁

《사향가》를 들으며

뜻깊은 4월을 맞이한 만경대고향집에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의 선률이 은은히 울린다. 조국과 혁명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혁명생애를 소중히 전하며 여기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에서 언제 한번 멎어본적 없는 《사향가》.

그 유정한 선률에 심취되여 고향집으로 한걸음한걸음 옮길수록 숭엄해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다. 누구나 늘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이지만 만경대고향집에서 들으니 생각은 더욱 깊어진다.

우리 수령님께서 빨찌산 그 시절에 밀영의 우등불가에서 고향을 그리며 부르시던 《사향가》를 오늘은 그이를 그리며 고향산천이 부르는것인가.

《사향가》,

한평생 고향 만경대를 가슴에 안고 사신 우리 수령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절절히 불러오신 노래인가.

하다면 《사향가》는 단순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노래였던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기나긴 세월 인간이 당할수 있는 모진 슬픔과 피로움을 다 겪으시면서도 오직 혁명만을 생각하시였으며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누구나 고향에 대한 노래를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께 있어서 《사향가》는 비단 만경대와만 잇닿아있은것은 아니였다.

언제인가 한 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주체18(1929)년, 위대한 수령님께서 고유수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실 때였다.

어느날 삼광학교 교원실에서 노래의 선률이 은은히 흘러나왔다. 혁명조직성원들과 학생들이 심금을 울리는 그 선률에 이끌려 교원실로 달려가보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용히 노래를 부르고계시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그 노래를 배워주실것을 간청드리였다.

《사향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노래를 다 배워주시고나서 학생들과 혁명조직성원들에게 사랑하는 조국과 정든 고향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왜놈들과 싸워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국권회복을 다짐하며 나섰던 독립군들이 손때묻은 총을 땅에 묻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독립선언을 련발하며 구호만을 웨치던 우국지사들도 《망향가》를 부르며 해외로 황황히 망명해가던 그때 《사향가》의 선률로 새 세대들을 열렬한 조국애, 투철한 혁명의식으로 무장시키시며 조국해방의 길, 혁명의 앞길을 열어나가신 위대한 수령님.

그이께서 이렇게 키워주신 우리 혁명의 첫 세대들은 《사향가》에서 떠나온 조국과 고향을 생각했고 만경대를 그리며 혁명에 충직할 각오를 더욱 굳게 다지군 하였다.

《사향가》가 고향에 대한 범속한 그리움의 정으로만 울리였다면 사람들의 가슴을 그처럼 뜨겁게 적셔주지 못했을것이다.

달밝은 밀영의 밤 우등불가에서 빨찌산대원들과 함께 《사향가》를 부르실 때에도, 전화의 나날 인민군 군인들의 가슴마다에 이 노래로 고향과 조국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실 때에도 우리 수령님께서 마음속에 안아보시던 아름다운 만경대는 곧 삼천리금수강산이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혁명생애의 전기간 그 노래를 사랑하시였고 《사향가》는 그이의 한평생의 주제가였다.

애국의 선률은 오선지가 아니라 조국을 위해 바친 고귀한 생애의 자욱자욱우에 새겨진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바로 《사향가》의 선률을 가슴에 안으시고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을 창건해주시였고 불패의 자주강국을 세워주시였으며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해주시였다.

그이께서 한평생 멀고 험한 길을 걸으시며 온 나라 방방곡곡에 일떠세워주신 무수한 조국의 재부들은 하나하나가 그대로 우리 수령님께서 안고사신 애국의 선률의 산아였다. 절세의 애국자의 위대한 심장에서 끓던 그 절절한 선률에 백화만발한 사회주의대지에 인민의 행복이 나날이 주렁져가는 오늘의 현실이 또 얼마나 뜨겁게 실려있는것인가.

정녕 《사향가》는 고향의 좁은 동구길을 벗어나 조국이라는 성스러운 세계를 안고사신 위대한 인간의 애국찬가였다.

충정의 70일전투참가자들이 오늘도 만경대고향집을 찾는다. 그들의 가슴마다에 《사향가》의 선률이 숭고한 애국의 당부로 더욱 뜨겁게 새겨지고있다.

《사향가》에 어린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의 념원을 소중히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기어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리라.

본사기자 김준혁

주체사상은 불패의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력한 무기

온 나라 천만군민이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으로 될 당 제7차대회를 향하여 질풍노도쳐 나아가고있는 력사적인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하신 34돐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주체71(1982)년 3월 31일에 발표된 이 로작은 우리 혁명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심화발전시킨 불멸의 대강이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대중의 삶과 투쟁의 참된 교과서,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이다.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30여년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과시된 빛나는 로정이다. 이 나날에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요구대로 살며 투쟁하는 길에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진리를 심장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백과전서적인 혁명사상이며 인류의 미래를 향도하는 위대한 사상이다.》

사상의 위대성은 그 시대성과 과학성, 영원한 생명력에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원리, 지도적원칙을 과학리론적으로 폭넓고 깊이있게 해명하심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라는것을 완벽하게 밝히시였다.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가 가장 정확히 반영되고 무궁무진한 생명력을 지닌 주체사상의 원리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된 로작이야말로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의 고귀한 산물이고 총정의 결정체이다.

일찌기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제시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천만군민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풀어나가시였다. 우리가 단 한번의 로선상탈선이나 순간의 멈춤도 없이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로 꿋꿋이 걸어올수 있은것은 주체사상을 영원한 혁명의 지도적지침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주체사상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는데 승리와 번영이 있다는것, 이것이 우리 혁명의 력사적총화이다.

오늘 새로운 주체100년대진군길에서 주체사상의 절대적진리성과 변혁적위력이 더욱 뚜렷이 과시되고있다.

주체사상은 천만군민을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만장약된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우는 자양분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려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투철한 사상과 신념은 혁명의 원동력이고 승리의 원천이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고있다. 사상적요인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고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여나갈 때 대중은 필승의 신념과 락관을 가지고 강한 의지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높이 발휘해나가게 된다.

인민에 대한 최대의 사랑은 그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시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키우는데 있다. 오늘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불길속에서 사상교양거점들이 훌륭히 꾸려지고 사상사업의 형식과 방법들이 부단히 개선되고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김일성-김정일주의총서인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로작들과 당문헌들을 환히 꿰들기 위한 전민학습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는 속에 모든 인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오직 주체형의 붉은 피로 심장을 끓이는 투철한 혁명가들로 튼튼히 준비되고있는것은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주체사상의 전일력을 비상히 높여나가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은 사상과 신념의 대결전이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와 고립압살책동,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은 날로 악랄해지고있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을 결코 놀래울수도 굴복시킬수도 없다. 천만군민이 당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철옹성을 이룬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자라난것은 그 무엇과도 대비할수 없는 가장 큰 성과이다. 세계는 위대한 사상으로 무장하고 불굴의 신념으로 만장약된 우리 인민이 어떻게 최후승리를 이룩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무력을 무진막강한 힘을 지닌 불패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 위력한 보검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인민무력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는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정치사상적우월성은 혁명무력의 본질적우월성이며 불패성의 원천이다. 우리의 승리의 력사와 전통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요인이 무기나 전투기술기재에 있는것이 아니라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자각한 군대와 인민의 정치사상적우월성에 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었다. 혁명적군인정신을 비롯하여 인민군대에서 발휘된 숭고한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은 주체사상에 그 바탕을 두고있다.

사상이 투철한 총대만이 혁명의 승리를 담보할수 있고 무적필승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다. 오늘 인민군대를 당의 유일적령군체계가 확고히 선 혁명적당군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 당의 령도에 의하여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가 높은 단계에서 성과적으로 실현되여가고있다.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필수5대교양에 화력을 집중하고있으며 혁명적인 도서들과 화상교양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교양수단들을 리용하여 정치사업의 실효성을 최대한으로 높여나가고있다.

선군의 기치밑에 당의 군대, 최고사령관의 군대로서의 백두산혁명강군의 혁명적본태가 견결히 고수되고 전군이 오직 당이 가리키는 한 방향으로 총구를 내대고 나아가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억척의 지지점으로 되고있다. 모든 군인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심장에 쪼아박고 죽어도 혁명신념을 버리지 않는 참다운 혁명투사, 반제계급의식으로 만장약된 사회주의수호의 제일보위자, 제일근위병으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이 바로 주체사상을 신조로 삼고있는 우리 인민군대의 참모습이다.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불패의 혁명무력이 있기에 우리는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련전련승할것이다.

주체사상은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경제강국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갈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자강력제일주의는 자기 힘을 더욱 비대시키는 추동력이다.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경제강국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기 인민의 힘과 자기 나라의 자원을 동원하고 자체의 자금과 기술에 의거하여야 경제를 주동적으로,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온갖 난관을 이겨내고 나라의 흥성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자강력제일주의의 기반은 자기 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이다. 주체의 항로를 따라 힘차게 전진해온 우리 혁명의 전로정은 자력갱생의 년대기로 아로새겨져있다. 백두밀림에 차넘치던 연길폭탄정신은 항일대전의 승리를 안아왔고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 군자리정신은 전승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우리가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행하고 자립적민족경제를 일떠세울수 있은것도 혁명과 건설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왔기때문이다.

오늘 우리 천만군민은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경제강국건설에서 눈부신 전변을 이룩해나가고있다. 주체조선의 종합적국력을 힘있게 과시하는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를 비롯하여 다계단으로 일어나고있는 민족사적쾌거들은 자력자강의 길을 택한 우리의 결심이 천만번 정당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국산화의 열풍속에서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개발과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 평양메기공장이 현대화의 본보기, 표준공장들로 전변된것을 비롯하여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되고있는 자랑찬 성과들은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경제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의지의 힘있는 과시이다.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력사적투쟁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투쟁과 전진의 강위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장성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박사 홍영삼

주체교육과학의 최고전당에 교육혁명의 불길 거세차게 타오른다

새 학년도를 맞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은 자기의 위치와 임무에 맞게 혁명인재양성사업에서 앞장서야 하며 대학교육의 본보기가 되여야 합니다.》

뜻깊은 올해의 새 학년도가 시작되였다.

온 나라 교육자들, 학생들과 함께 이날을 맞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가슴가슴은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주체교육과학의 최고전당으로 번영의 한길을 걸어온 대학의 자랑찬 70년로정과 함께 철야진군의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수놓아온 70일전투의 보람찬 나날들에 대한 긍지로 세차게 설레이고있다.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과 숭고한 뜻이 아로새겨진 김일성종합대학은 나라의 맏아들대학답게 70일전투의 불길높이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의 앞장에서 힘차게 달리고있다.

지난 한달 남짓한 기간 대학의 전투기록장에는 그 얼마나 눈부신 성과들이 새겨졌던가.

우리는 비약의 숨결을 안고 약동하는 룡남산에서 교육강국, 인재강국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온 나라 교육자들의 힘찬 발걸음소리를 듣는다.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하나

주체조선의 만리마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 창출하기 위한 70일전투가 시작된 때로부터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70일전투의 첫걸음부터 교육부문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니 어찌 대학의 일군들과 교육자들의 기세가 충천하지 않으랴.

실리있고 우월한 교육방법창조, 교육조건과 환경개선,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이것이 그대로 70일전투의 중심목표로 되였다.

대학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교무부에서는 지난 시기 새 교수방법창조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매 대학, 학부, 강좌, 연구실들은 물론 교원, 연구사들에 이르기까지 수행하여야 할 사업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우도록 하고 교육사업전반에서 일대 전환을 안아오기 위한 작전을 통이 크게 펼쳐나갔다.

불과 4주사이에 대학적으로 96건의 우수한 교수방법들이 창조되고 론리학, 심리학을 비롯한 여러 과목에서 전국에 일반화할수 있는 훌륭한 교수방법들이 창조된것은 교육방법에서부터 혁신을 일으켜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드는 길에서 대학이 지닌 귀중한 열매였다.

이뿐이 아니다. 수시로 진행된 교수합평회들과 매 교원들의 교수수준에 대한 평가사업은 온 대학에 새 교수방법을 창조하기 위한 열풍을 더욱 고조시켰다.

70일전투기간에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에서도 놀라운 혁신이 일어났다.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여 대학적으로 더 많은 발전능력을 조성해놓은것은 대학의 교무행정사업정보화와 원격강의봉사, 다기능교실들에 갖추어진 교육정보설비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할수 있게 하는데서 큰 밑천으로 되고있다.

2호교사 550석강당을 현대적이며 다기능화된 종합강의실로 꾸리기 위한 공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을 때 경제학부에서는 70일전투가 시작되여 보름만에 경제관리모의실습실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완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수십대의 콤퓨터와 전자칠판, 액정텔레비죤 등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추고있는 이 실습실은 학생들이 경제관리업무실습을 공장, 기업소들에 나가 진행하는것처럼 할수 있게 정보화가 훌륭히 실현된 첨단수준의 실습실이다.

실험실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여러 대학, 학부들에서도 힘있게 벌어졌다. 대학적으로 70일전투가 시작되여 한달사이에 30종의 현대적인 실험설비들과 60종의 실험기구들이 제작되고 3종의 실험설비들이 현대화되였으며 70여종의 실험실습설비들이 수리되여 실험실습교육의 질을 높여나가고있는것은 또 하나의 귀중한 성과이다.

전자자동화학부, 지질학부, 재료과학부, 지구환경과학부, 생명과학부에서 첨단수준의 실험설비제작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한데 이어 물리학부를 비롯한 여러 학부들에서 여러건의 실험과목을 새롭게 개척함으로써 학생들의 실천능력을 높여주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되였다.

학생들속에서 학습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지는 속에 대학에서는 70일전투기간에 수백개 과목에 대한 콤퓨터시험체계를 완성하고 10여만개의 시험문제를 입력함으로써 학생들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들의 학습의욕을 높이고 경쟁열풍을 일으키는데서 또다시 큰걸음을 내짚게 되였다. 그뿐만아니라 현재까지 매 대학, 학부들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수십개 과목에 대한 학과경연을 조직진행한것은 학생들속에서 학습경쟁열풍을 더욱 고조시켰다. 이와 함께 2차례에 걸쳐 국제인터네트프로그람경연과 꼭같은 형식으로 진행된 학부별프로그람작성경연은 학생들의 프로그람작성수준을 한계단 끌어올리고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3월에만도 인터네트상에서 치렬하게 벌어지는 국제적인 프로그람경연들에 여러차례 출전하여 우승함으로써 룡남산의 영예를 떨친 대학학생들의 혁혁한 성과는 교정의 학습열의를 더욱 고무추동하였다.

70일전투기간 교육방법개선과 함께 교육내용개선에서 보다 큰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됨으로써 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는데서 큰 전진을 가져오게 되였다.

정치사상과목교육을 위대성위주의 교육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교육내용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사상리론을 반영하여 매 과목들을 새롭게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경제학부와 철학부에서는 수백건의 교수안들을 새로 작성하고 전자직판물들도 완성하여 새 학년도부터 리용하기 위한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었다.

70일전투가 벌어져 한달 남짓한 사이에 수백개 과목의 1만 7 800여건에 달하는 교수안들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를 실현하고 1 290여개 과목과 4만 700여개 강의안을 다매체화된 전자강의안으로 제작하는 사업이 마감단계에 들어섰다. 대학의 일군들은 70일전투가 벌어진 한달동안 지난 시기에 비해 거의 6배에 달하는 성과들이 이룩되였다고 긍지에 넘쳐 말하고있다.

종합대학의 곳곳마다에, 대학, 학부들마다에 게재된 속보판들의 힘있는 글발들과 경쟁도표들은 말해주고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간직하고 언제나 우리 당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해나가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들과 학생들의 충정의 열도를.

최대의 마력으로 최상의 성과를

교수사업과 함께 과학연구사업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하려는 교육자들의 열의도 비상히 높아졌다.

최첨단돌파의 기상은 오늘 경제학부를 비롯한 김일성종합대학 사회과학부문의 모든 대학, 학부, 강좌들에서 날이 갈수록 경쟁적으로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사회과학부문 교원, 연구사들이 70일전투기간 이룩하고있는 다발적이며 련발적인 성과들은 얼마나 눈부신것인가.

력사학부에서 충정의 70일전투기간에 새로 개발한 혁명력사교육지원프로그람 《불세출의 위인》은 혁명력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여 학생들은 물론 각계층 근로자들에게도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을 더욱 깊이 체득시키는데서 실로 큰 의의를 가진다.

70일전투의 시작과 함께 혁명력사교육지원프로그람을 개발할것을 결의해나선 력사학부에서는 이 사업을 힘있게 다그쳐 수천건에 달하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2 400여페지에 달하는 교과서와 많은 분량의 강의안, 매 절에 따르는 직관물, 10여종에 200여건에 달하는 참고서, 5 600여개에 달하는 사전올림말, 700여명의 관계인물, 2 220여점에 달하는 구호문헌자료들과 주요회의, 주요년표, 교양자료를 비롯한 방대한 자료기지들을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구축하고 프로그람으로 실현함으로써 혁명력사교육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서 큰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이 혁명력사교육지원프로그람을 망에서도 리용하고 개인용콤퓨터에서도 리용할수 있게 완성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력사학부에서는 이밖에도 내용과 형식에서 새롭고 교양적효과가 큰 5대교양다매체편집물을 제작완성함으로써 학생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무장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키워가는데 이바지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평양시 삼석구역 광덕리에서 발견된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무덤에 대한 조사발굴을 통하여 그 시기의 회곽무덤구조와 축조방식, 장례풍습 등에서 새로운 문제점들을 밝혀냄으로써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더욱 빛내여나가는데서 또 하나의 성과를 이룩하였다.

철학부에서 여러건의 국보적인 도서집필과 편집사업을 다그쳐 끝내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업적,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과 자강력제일주의로 무장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수십건의 론문과 대외홈페지론문을 집필한데 이어 70일전투기간 20종의 도서집필을 완성할 목표를 내세우고 여기에 박차를 가하고있을 때 경제학부의 교원, 연구사들은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 평양화장품공장, 자연박물관 등에 달려나가 통합경영정보체계를 개발도입하기 위한 연구활동과 여러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을 현대화, 정보화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거두었다. 학부에서는 공장, 기업소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는 과정에 얻은 연구성과들과 자료들을 종합, 분석, 체계화하여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 기여할수 있는 새 과목을 개척하고 교과서와 참고서들에 대한 집필을 완성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외국어문학부에서도 학생들이 강의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공고히 다질수 있게 하는 외국어기능련습프로그람과 학생들의 외국어실력을 과학적이면서도 정확하게 평가할수 있는 외국어실력판정프로그람을 개발하고 련이어 도조기계번역프로그람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과학기술전당의 다매체편집물번역사업에서도 날마다 혁신을 이룩해가고있다.

70일전투기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학대학에서 올린 학생작품집 《룡남산의 서정》과 시 《과학자 나의 70일》을 보아주시였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대학의 교육자들이 다발적이며 련발적인 성과를 이룩하며 더욱 기세를 올리고있다.

매일이다싶이 대학에서는 천만군민을 70일전투에로 고무하는 창작품들이 나오고 여러건의 언어학과 관련한 론문들이 세계적인 잡지들에 투고되였다.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외교, 무역 등 사회생활의 각이한 분야를 반영한 민족고전에 대한 편집이 70일전투에 들어서면서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있는 혁혁한 성과들로 하여 온 대학이 부글부글 끓고있다.

대를 이어 거듭되는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높은 교육성과, 과학연구성과로 보답하려는 김일성종합대학의 전체 교원, 학생들의 불타는 열정과 신념이 비껴있어 새 학년도개학을 맞이한 룡남산의 숨결은 참으로 뜨겁고 벅차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며 숭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골간들을 키워내기 위한 종합대학 교육자들의 투쟁은 날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고있다.

남은 70일전투기간에 오늘의 성과를 초월하는 더 큰 비약의 열매들을 끝없이 마련할 확고한 신심과 드높은 결의가 새 학년도를 맞는 주체교육과학의 최고전당에 차넘치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진혁
본사기자 공로혁
사진 본사기자 림학락

전투목표 기한전에 앞당겨 수행

흥남제약공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흥남제약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충정의 7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불타는 일념을 안고 새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창안도입하여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5합성직장에서는 전투개시 3일만에 열매가열기증기순환장치를 새롭게 창안도입하여 광폭항균약의 생산능력을 단번에 2배로 끌어올리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나갈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깊이 새긴 이곳 직장일군들은 생산잠재력의 예비는 과학적인 생산방법을 받아들이는데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이를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그 과정에 이들은 지난 시기 광폭항균약생산에 리용한 증기를 회수로 흘려보내고있는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많은 열량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쓸모없이 버려지는 그 회수를 다시 리용한다면 약제조에 필요한 증기생산에 드는 원가를 훨씬 줄일수 있을뿐아니라 시간도 대폭 단축할수 있었다.

이를 위해 직장에서는 열매가열기증기순환장치를 새롭게 창안도입하였다. 한편 리용한 증기를 생산에 다시 쓸수 있도록 하는 이 장치를 직장안의 5개 열매가열기들에 받아들임으로써 광폭항균약생산을 훨씬 장성시킬수 있게 되였다.

5합성직장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공장의 모든 생산단위들에서 새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기 위한 사업이 경쟁적으로 벌어짐으로써 의약품생산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1합성직장에서는 새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여러가지 의약품들에 대한 년간 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2, 3, 4합성직장들에서도 그에 뒤질세라 바싹 따라서면서 증산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가고있다.

날로 고조되는 경쟁열풍속에 공장에서는 3월말까지 전투목표를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금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기어이 앞당겨 수행하기 위해 맹렬한 생산돌격전을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주령봉

이동식삭도로 최고의 운반실적을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봉화지도국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만리마를 탄 기세로 내달려 토양개량제운반에서 기적을 창조하였다.

돌격대가 맡은 근 200정보의 비탈진 자연풀판에는 륜전기재가 올라갈수 없는 조건에서 그전처럼 마대로 토양개량제를 운반하자면 한달이라는 기간이 걸린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운반방법을 혁신하여 다음공정들을 앞당겨 끝내고 먹이풀증산의 담보를 마련할 목표를 세웠다. 이들은 서로의 지혜를 합쳐 이동식삭도에 의한 토양개량제운반방법을 찾았다.

이들은 삭도리용에 편리한 위치에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더미를 쌓아놓았다. 그리고 두개 소대가 각각 250m의 바줄과 활차를 가지고 유기질비료더미가 있는 곳으로 옮겨가며 그것을 풀판에 운반하였다. 결과 같은 로력으로 종전에 비해 하루평균 4－5배의 운반실적을 올릴수 있게 되였다.

이들은 70일전투의 나날들을 기적창조의 로력적위훈으로 빛내일 각오를 안고 토양개량제의 하나인 고회석운반에도 삭도를 리용하였다.

돌격대에서는 이처럼 이동식삭도를 리용하여 수백t의 토양개량제운반을 단 며칠동안에 끝내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그리하여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정보당 먹이풀수확고를 훨씬 더 높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본사기자 김성철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불멸의 꽃 김일성화를 온갖 정성을 다해 키워가고있다. —중앙식물원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재일조선학생체육선수단이 떠나갔다

【평양 3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총세박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학생체육선수단이 3월 31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스스로 후원단체가 된 사연

‖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에서 ‖

얼마전 동대원구역 동신소학교에는 많은 량의 세멘트를 실은 자동차가 들어섰다.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손에는 무게있게 만든 학교명판도 들려있었다.

학교일군들과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며 교정으로 들어서는 그들은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 당책임일군을 비롯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중앙과 지방의 당, 국가경제기관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모든 일군들이 교육사업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조선로동당 제1비서와 발걸음을 같이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실 몇년전까지만 해도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은 동신소학교의 정식후원단체로 되여있지 않았다.

이웃사촌이라고 지도국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울타리를 사이에 두고있는 학교의 일을 조금이나마 도와주려고 하였지만 학교에서는 나라의 중요대상건설들을 맡아 바쁜 시간을 보내고있는 지도국일군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길은 극력 부담을 주지 않는데 있다고 생각하며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도국일군들은 학교사업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늘 관심하였다.

교사앞도로에 깔 수천장의 보도블로크도 마련해주고 학교에서 일판을 벌릴 때에는 기능공로력도 보장해주며 성의를 다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창문을 통해 학교를 바라보던 당책임일군의 눈길은 오래도록 교사정문에 멎어있었다.

정문만 멋들어지게 다시 만들어놓아도 학교의 면모가 크게 일신될텐데 하는 생각이 그의 머리속에서 떠날줄 몰랐다.

즉시 해당 일군들과 구체적인 토론을 끝낸 그는 교장과 마주앉았다. 그런데 이번에도 교장 강경옥동무의 태도는 여전하였다.

《고맙습니다. 책임비서동지, 그렇게 바쁜 속에서도 늘 우리 학교를 생각해주시니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할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나 우리자체의 힘으로 해보겠습니다. …》

이렇게 또다시 사양하였건만 그로부터 며칠후 학교일군은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이 정식 학교의 후원단체로 되였다는 통지를 받게 되였다.

《교장선생님, 이제부턴 우리도 주인입니다. 그러니 더 만류할 생각을 마십시오.》라고 말하며 정문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들고 교정에 들어서는 지도국일군들을 보는 순간 교장을 비롯한 학교일군들과 교원들의 눈가에는 뜨거운것이 맺혀 소리없이 흘러내렸다.

이처럼 스스로 학교의 후원단체가 된 지도국에서는 100여㎡의 여러가지 마감건재들로 교사의 정문과 중앙현관을 일신시켜주었다. 학교의 면모를 더한층 살려주는 학교명판도 지도국일군들의 착상에 의해 마련될수 있었다.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 일군들은 오늘도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앞장에서 지펴올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힘찬 발걸음에 전진의 보폭을 맞추며 학교사업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교사의 내외부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건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를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진척시켜나가고있다.

본사기자 한경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미국이 조선반도정세격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해보려고 어리석게 시도하고있다.

미국은 저들의 극악한 침략전쟁책동과 제재압살소동에 대처한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대응조치들을 그 무슨 《도발》과 《위협》으로 묘사하면서 우리때문에 조선반도정세가 긴장되고있는것처럼 흑백을 전도하고있다.

명백히 하건대 오늘의 엄중한 사태는 철두철미 미국이 만들어낸것이다.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게 된것도 오늘에 와서 선제공격적인 대응방식을 택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도 전적으로 미국때문이다.

미국의 핵위협공갈은 결코 어제오늘에 시작된 일시적인 현상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정책화해놓고 수십년동안 매일과 같이 가해오고있는 현실적인 위협이다.

미국은 지난 세기 50년대에 벌써 우리에 대한 핵공격을 획책하였으며 새 세기초에는 부쉬행정부가 비핵국가였던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 핵선제공격대상으로 공식 지정하였다.

오바마행정부 역시 2010년 4월 우리를 핵불사용대상국명단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으며 오늘까지도 그에 대해 중단없이 공언하고있다.

미국은 해마다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각종 핵전쟁장비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겨냥한 핵공격을 실천적으로 준비하여왔다.

특히 미국이 이번에 벌려놓은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은 그 규모와 도발적성격에 있어서 전례가 없는것이다.

미국은 남조선괴뢰들과 함께 30여만의 대병력과 《B-52》핵전략폭격기, 핵잠수함, 핵항공모함타격집단들을 총동원하여 《북통심내륙진공작전》과 《평양점령작전》등 우리의 《제도전복》을 목표로 하는 실동훈련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성과 위험성은 미국이 종전의 《년례적》이며 《방어적》이라는 간판마저 줴버리고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노린 《참수작전》과 전략타격수단들에 대한 《족집게식타격》을 실전에서 검토하는가 하면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감히 우리의 최고수뇌부집무실을 파괴하기 위한 극악무도한 《정밀타격훈련》까지 벌려놓는 등 무모한 도발을 공공연히 감행하고있다는데 있다.

주권국가의 수뇌부를 특수작전으로 제거하겠다고 내놓고 떠들며 날뛰는 미치광이같은 도전을 용인할 나라나 정부는 이 세상에 없다.

무엄하게도 우리의 최고존엄을 해치려드는 원쑤들은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교전관계에 있는 적대국이 방대한 핵전쟁장비들을 총동원하여 눈앞에서 불의적인 기습타격훈련을 벌리고있고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참수작전》이라는것을 실제적으로 준비하고있는것을 뻔히 보면서 참고 자제한다는것은 절대로 있을수 없는 일이다.

굴욕적인 자제와 양보가 오히려 더 파멸과 동란에로 이어진다는것은 력사의 교훈이며 엄연한 현실이다.

세계최대의 핵무기보유국이며 세계유일의 핵무기사용국인 미국이 우리를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정해놓고 핵위협을 끊임없이 가중시키며 덮칠 기회만 노리고있는 조건에서 그 사소한 기미라도 보이는 경우 우리 군대가 단호한 핵선제타격으로 대응하는것은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명백한 자위권행사로 된다.

미국은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동시에 극단적인 정치경제적압박책동에 매여달리고있다.

미국이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히 담보되여있는 주권국가의 자위권과 합법적권리를 걸고들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제재결의》를 날조해낸것이야말로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고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며 전횡의 극치이다.

미국은 유엔무대에서 전대미문의 악랄한 대조선《제재결의》를 조작해낸것도 모자라 빈구멍을 메운다고 하면서 우리의 정상적인 무역활동을 완전히 차단하고 지어 우리와 거래하는 다른 나라들을 《처벌》하는 날강도적인 단독제재책동을 꺼리낌없이 벌려놓고있다.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한 법전》에는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자기 의사를 강요하면서 그 어떤 리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치경제적인 강압조치를 취하며 그 나라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는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로 된다고 규제되여있다.

보복성을 띤 제재를 가하는것도 국제법위반이며 특히 주권국가에 대한 봉쇄형의 제재는 침략행위로서 국제법에 전면배치되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유엔의 이름을 걸고 《제재》를 가하다 못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도 끝내 통과시키지 못한 불법무법의 제재항목까지 기어코 실행해보려고 추종세력들을 끌어들여 발광하고있는것은 국제법을 만들어낸 모든 나라들에 대한 우롱이며 국제공동체 전반의 한결같은 비난을 받아 마땅한 강권행위이다.

유엔과 국제사회우에 군림한 무뢰배처럼 행세하며 비법적이며 강도적인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주권국가를 기어코 질식시키려는 미국의 무분별한 책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미국이 우리에 대하여 감행하고있는 군사적위협과 적대행위들이 우리의 최고수뇌부와 《제도전복》을 노린 망동이라는것이 불보듯 명백해진 이상 우리는 신성한 최고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맞받아나갈수밖에 없게 되여있다.

미국의 핵위협공갈과 합동군사연습, 제재압살책동이야말로 조선반도정세가 핵과 핵이 맞부딪칠수 있는 일촉즉발의 극단한 지경에 치닫아오르게 한 근원이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우리의 반발을 유도하여 긴장격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며 하고있지만 그럴수록 침략자, 도발자로서의 자기의 정체만 더욱 드러내놓을뿐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무분별한 핵전쟁도발책동과 제재압박소동에 대처하여 정정당당한 자위권을 단호히 행사할 멸적의 의지에 넘쳐있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의 최고리익과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려 드는 경우 즉시에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것이며 우리의 자주권과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근원적으로 깨끗이 제거해버릴것이다.

주체105(2016)년 3월 31일
평 양

병진의 포성은 영원한 평화와 번영을 선언한다

지금으로부터 3년전 선군조선은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와 인민의 천만년미래를 결정짓는 중대결단을 내리였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이 로선은 금번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전략적로선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두철한 민족자주의 리념과 성스러운 선군혁명령도사가 비껴있는 자위적핵무력을 천백배로 강화하여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며 이 땅우에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의 결정체이다.

주체의 사회주의조선은 위력한 핵억제력에 토대하여 강성번영의 세기적인 리상을 실현하는 최후승리의 단계에 진입하였음을 알리는 력사의 통장훈을 불렀다. 머지않아 혁명강중심의 세계정치구도가 뿌장나고 자주적인 세계질서가 세워지게 될것이라는것을 장엄히 에고하였다.

온 행성이 끓어번지였다. 세계가 《김정은 식 선군정치로선》 이라고 평한 우리의 병진로선이 발표된 후 적들은 《북핵폐기문제가 더이상 회담탁에 오르지 못하게 되였다.》, 《북핵문제의 지위를 세계비확화문제와 동렬에 놓았다.》, 《수십년에 걸친 북핵폐기노력이 물거품이 되였다.》 고 아우성쳤고 내외여론은 우리 공화국이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의 핵군축협상에 나설것이며 그로 하여 미제의 세계패권야망이 루리채 흔들리게 되였다고 조소를 금치 못하였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전대미문의 피비린내풍기는 정치군사적압박을 가해오고있던 시기에 경제건설과 함께 핵무력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한다는것은 누구나 해낼수 있는것이 아니였다. 지난 시기 일부 나라들이 핵무기개발을 시도하다가 미제와 그와 야합한 렬강들의 집단적압력에 굴복하게 된것은 담력과 의지가 약했기때문이다.

조국과 민족의 천만년미래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과 비범한 통찰력을 지닌 위대한 우리 당만이 조선반도정화를 위한 단호한 결심을 내리고 주저없이 실행할수 있었다.

불타는 지구가 아닌 아름답고 푸르른 행성을 위해 우리 공화국은 용약 세계평화용호의 성새가 되였다.

자위의 핵방패를 억세게 틀어쥐고나가야 조선반도를 군사적으로 병탄하고 우리 인민을 노예로 만들려는 미제의 야망을 짓부시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 피로써 쟁취한 모든 사회주의재부들을 굳건히 고수하며 민족의 생존권과 유구한 력사, 찬란한 문화 나아가서 세계의 정화를 지켜낼수 있다.

21세기 말전을 주도하게 될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대한 저들의 지배전을 위해 미제는 조선반도의 항시적인 불안정을 바라면서 북침전쟁도발에 미쳐날뛰고있다. 강력한 핵무력이야말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횡포한 압박과 군사정치적공갈을 완전히 뿌장낼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담보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온 겨레가 우리의 핵을 가리켜 억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민족의 생명이며 통일조선의 국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것이다. 우리의 핵타격능력이 크고 강할수록 미제의 침략야망은 영영 실현될수 없는 망상으로 남아있을것이다.

저들의 멸망을 앞당기는 우리의 병진포성에 기겁한 원쑤들의 발악은 극도에 달하였다. 《핵으로 빵을 얻을수 있다는 생각》 이라느니, 《대포와 버터를 다 가질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망상》 이라느니 하는 악담들과 《로기한다면 도울 용의가 있다.》 는 희떠운 나발들이 그칠새 없었다. 미제는 우리의 병진로선이 《절대로 성공할수 없을것》 이라고 피대를 돋구었고 박근혜역적패당도 《안보》 니, 《돈주머니》 니 하는 치졸한 망발까지 늘어놓으며 병진로선을 악랄하게 헐뜯었다.

원쑤들의 흉악한 속심은 우리가 더 강해지기 전에 이땅에 하나 무장해제시켜 뿌리깊은 침략야망을 기어코 실현해보자는것이다.

하지만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고 우리의 발걸음은 언제 한번 주춤거린적이 없었다. 선군조선은 보란듯이 병진의 포성을 더 높이 울리며 미약의 나래펴고 힘차게 전진하였다.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령토완정, 통일조국의 륭성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병진로선의 정당성은 지난 3년간 실천을 통해 립증되였다.

우리의 핵무력은 오늘 3년전에 비할바없이 장성강화되였고 그 힘에 떠받들린 새로운 시대정신, 조선속도창조의 거세찬 불길속에 온 나라 꽃펴에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잠깨하게 솟아올랐으며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났다. 력사의 기적인 통시에 달리는 필수 없는 륜연이였다.

오늘날에 와서 수많은 나라의 정치, 경제전문가들이 세계적으로 투자하는데 가장 적합한 나라는 다름아닌 조선이라고 하면서 아직 부족한것이 적지 않지만 정치, 경제, 군사, 첨단과학, 지하자원, 교육, 보건, 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토대가 탄탄하고 확고하며 령도자를 중심으로 군민이 일심단결되여있기때문에 조선의 강성번영은 시간문제라고 정하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우리의 병진로선에 대해 마구 시비질하던 미정계의 인물들까지도 《북이 국제적인 제재속에서 무슨 돈으로 대규모 시설들을 일떠세우고 경제를 활성화해 나가는지 모르겠다.》 고 우멍눈을 껌벅거리고있다. 악에 받친 남조선괴뢰들이 《허술한 대북제재》 때문에 병진로선이 빛을 보고있다고 오판하면서 《제재의 올가미를 더 바싹 조여야 한다.》 고 고아대고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무궁무진한 위력의 원천을 알래야 알수 없는 무지스러운자들의 가소로운 넉두리에 불과하다.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이미 실패한 《선핵포기정책》 에서 벗어나 《핵전파방지》 를 《북핵정책》 의 당면 목표로 삼을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용한 방안》 이라는 땍빠진 소리가 적들의 소굴에서 울려나오고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떡두산태국의 핵위력과 정의의 성전에 산악같이 일떠선 천만군민의 의지앞에 전률하였기때문이다.

우리 공화국이 병진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전진해온 지난 3년간을 통하여 세계는 억경앞에서도 자기의 승고한 사명을 백배천배로 가다듬는 선군조선의 기질을, 고난을 강자의 신념으로, 웃음으로 이겨나가는 조선인민의 락관의 모습을 보았다. 미제가 조선반도에 핵전쟁연습의 불구름을 끊임없이 지펴올리며 최후발악하지만 결코 선군조선을 어쩌볼수 없고 영웅적조선인민을 굴복시킬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알게 되였다.

승리와 영광은 정의의 길을 끝까지 걷는 의지의 강자들의것이다.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솟아있고 선군으로 다져온 무적의 핵억제력이 있는 한 승리는 언제나 우리의것이다.

그 누구도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핵보검을 틀어쥔 군사강국인 우리 공화국을 감히 건드릴수 없으며 그 어떤 힘도 자기 사상과 위업의 필승불패성과 미래에 대한 확신에 넘쳐 부강번영의 길로 기세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다.

위대한 병진로선의 기치아래 평화의 방패, 민족자주의 보검인 자위적핵억제력을 틀어쥐고 조선반도의 정화와 안정을 수호하며 정의로운 세계를 건설해나가려는 우리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는 억척불변이다.

날이 갈수록 더더욱 높이 울려퍼지는 병진의 장쾌한 포성은 이 땅의 영원한 평화와 통일, 무궁번영을 엄숙히 선언하는 승리의 뇌성이다.

허 영 민

환경파괴만행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의 범죄적인 북침핵전쟁 도발책동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들씌우고있다.

《키 리졸브》, 《독수리 16》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무엄하게도 민족의 최고존엄을 노리며 특대형도발까지도 서슴지 않은 박근혜역적패당때문에 최근 남조선인민들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를 극도의 불안속에 살아가고있다. 이런 판에 온 남조선땅을 미제의 북침핵전초기지로 통째로 섬겨바친 괴뢰당국의 사대매국행위가 엄중한 환경파괴사태까지 빚어내면서 인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크게 위협당하고있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기지들에서의 환경오염이 인민들에게 커다란 재난으로 되고있다는것은 이미전부터 널리 공인된 사실이다.

북침전쟁준비에 혈안이 된 호전광들이 환경보호는 안중에도 없이 남조선에 마구 끌어들인 장비들과 유독성화학물질들로 하여 미군기지와 그 주변의 토양은 심히 오염되였으며 그곳에서는 농사지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되였다. 미군기지들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된 폐수때문에 물고기들은 무리로 죽고 기지주변의 주민들은 물도 마음놓고 마실수 없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언론들이 미군기지를 가리켜 《글쭉없는 화학공장》 이라고 비난하였겠는가.

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와 관련하여 인민들과 환경운동단체들이 미군당국에 항의를 들이대고 오염정화를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침략자들은 그것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오히려 《행정협정》 을 구실로 저들의 책임을 괴뢰들에게 떠넘기며 오만무례하게 놀아댔다. 결국 괴뢰패당은 상전이 쓰다버린 미군기지들의 환경복구에만도 숱한 혈세를 들이밀게 되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남조선인민들에게 들씌워졌다.

미제침략군기지들의 환경오염문제로 남조선인민들이 당하는 재난은 박근혜역도가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으면서 더욱 커지고있다.

역도는 미국과의 《동맹관계의 손상》 이니 뭐니 하고 떠들며 미제침략군의 환경파괴범죄를 덮어버렸는가 하면 기지정화비용도 몽땅 저들이 부담하는 물개빠진짓만 하였다.

2013년에 있은 서울의 룡산미군기지에 의한 환경오염사건을 놓고보자. 당시 룡산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1만2200여㎡에 달하는 땅파 지하수까지 오염되였는데 이를 정화하는데만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였다. 남조선의 각계 단체들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사령부와 미국대사관에 오염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지만 범죄자들은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제침략군은 해군사령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기 위한 놀음을 벌첬이 벌려놓아 만사람의 분노를 자아냈다. 저들이 초래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할 대신 또 다른 지역의 환경을 파괴하려드는 미제침략군의 남장도적처사에 남조선인민들은 적분을 금치 못하였다. 하지만 박근혜패당은 끝먹은 벙어리처럼 항변 한마디 하지 못했다.

그들의 매국적처사는 그후 부산에 있는 미군기지폐기물처리장의 오염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실무회담이라는데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여기에서 괴뢰들은 오염제지비용을 전부 부담하라는 미국의 날강도적요구를 고스란히 받아물었다. 이런 식으로 괴뢰들이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으로부터 넘겨받는 기지들의 환경복구비용을 부담한 실례는 허다하다.

지난해에도 박근혜패당은 미국과 매국협상을 벌려놓고 부산파 동두천의 미군기지들의 환경복구비용을 몽땅 부담하기로 하였다.

지금도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기지주변의 땅에서는 세계적으로 사용과 제조가 금지된 1급발암물질들이 계속 검출되고있으며 이런 심각한 생태환경파괴로 산짐승과 남새들마저 멸종의 위기에 처하고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역도는 미국의 환경파괴범죄를 구구 비호두둔하면서 상전과 함께 북침전쟁도발책동에 계속 미쳐날뛰고있다. 이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침략군의 북침전쟁연습은 물론 환경파괴만행의 피해자로까지 되고있다. 인민들이야 고통을 당하든말든, 남조선땅이 황폐화되든말든 상관없이 미국을 등에 업고 팔수에 배긴 북침야망만 실현하면 그만이라는 바로 이것이 박근혜역적패당의 흉악한 속심이다.

박근혜역도야말로 북침을 위해서라면 남조선의 모든것을 통째로 미국에 섬겨바칠 최세의 매국노, 반역아이다.

죄는 지은데로 간다.

밖으로는 북침전쟁도발에 미쳐날뛰며 우리에게 극악무도한 도발을 걸고 안으로는 미제침략군의 뒤나 씻어주며 인민들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는 매국역적 박근혜에게 차례질것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뿐이다.

본사기자 장 윤 남

박근혜 《정권》의 독재에 맞서 투쟁할것이다

남조선단체가 주장

남조선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가 3월 26일 서울에서 모임을 가지고 박근혜역적패당의 독재에 맞서 싸워나갈것을 주장하였다.

모임에서 발언자들은 단체가 수십년동안 랑심수석방과 자주통일을 위해 투쟁하였지만 아직도 이 땅은 엄혹하고 추운 겨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고 개탄하였다.

《을신》 독재 《정권》 시기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갈망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간첩으로 몰려 잡혀가 고문을 받아야 하였고 이를 절규하면 가족들이 구속자석방과 《보안법》 철폐를 웨치기 시작하면서 민가협이 결성되였다고 그들은 밝혔다.

그들은 탄압의 시대에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의 투쟁에 모든 민중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민중이 그토록 바라는 민주화가 실현되고 인권이 보장된 사회는 저절로 오는것이 아니며 각계 민중이 투쟁하여야 마련될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모두가 떨쳐일어나 력사의 한페지를 기록하자고 하면서 박근혜 《정권》 의 독재에 맞서 20만통권기를 성사시켜 승리를 이룩하자고 호소하였다.

이어 단체는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결의문은 《보안법》 이 여전히 진보세력을 탄압하고 고립시키는 악법으로 존재하고있으며 수많은 랑심수들이 감옥에 갇혀있다고 비난하였다.

남조선에서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인간의 존엄은 훼손되였으며 정화와 통일념원은 짓밟혔다고 결의문은 단죄하였다.

결의문은 지금이야말로 특권층만을 위하고 《유신》 독재를 부활시키는 현 《정권》 에 맞서 투쟁할 때라고 지적하였다. 민주화와 정화, 통일을 위해 투쟁한 렬사들의 정신을 이어 끝까지 투쟁할것이라고 결의문은 강조하였다.

4.3봉기희생자들을 모독하는 괴뢰집권세력을 단죄

남조선의 제주지역 대학생들이 3월 26일 제주시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4.3봉기희생자들에 대한 재심의책동의 중지를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4.3봉기희생자들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하는 보수세력의 계속되는 망동은 항쟁참가자들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규탄하였다.

4.3봉기는 더이상 론쟁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들은 《정부》 가 재심의론난이 종식될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박근혜가 해외행각을 구실로 이번 4.3봉기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념식에 참가하지 않으려 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기자회견에 앞서 대학생들은 4.3봉기희생자들에 대한 재심의를 반대하여 시위행진을 벌렸다.

【조선중앙통신】

천인공노할 죄악의 대가는 죽음

미제의 사촉하에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치떨리는 도발망동을 부린 박근혜역적패당에 대한 천만군민의 분노와 보복의지는 지금 무섭게 치솟고있다. 온 조국강토가 천백배 정법의 열기로 끓어번지고있다. 백두산혁명강군과 우리 인민은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와 더러운 민족반역의 무리인 박근혜역적패당을 씨도 없이 초토화해버릴 성전개시의 명령만을 손꼽아 기다리고있다.

정신병자같은 박근혜역적패당은 세계도처에서 악명을 떨친 미제침략군의 특전작전부대들을 모조리 남조선에 끌어들여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히스테리적광기를 부리다 못해 《청양점령작전》 이니, 《참수작전》 이니, 《침투실정밀타격훈련》 이니 하는 천하무도한 도발행위까지 감행하면서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어째보려고 어리석게 날뛰고있다.

지난 시기 괴뢰들은 우리를 겨냥한 각종 특수훈련들을 수없이 벌려왔다. 그것들은 하나하나가 다 인간의 리성마저 완전히 꿰뚫린 미친개무리의 극악무도한 도발들이였지만 형식상이나마 비공개로 몰래 감행되였다.

그러나 보라. 적들은 그 치떨리는 범죄적망동을 세상에 내놓고 공개적으로 벌려놓았다. 그만큼 박근혜역적패당의 북침광기는 최절정에 달하였다.

우리의 참과 운명의 태양을 감히 가리워보려고 감행한 쥐새끼만도 못한 역적무리의 만고대죄는 천추만대를 두고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어리석은 개꿈을 꾸며 달려드는 역적패당을 단 한놈도 이 하늘아래서 살아숨쉴수 없게 모조리 죽탕처 칠지히 매장해버려야 한다.

이제 조선반도에서 무슨 사변이 일어난다고 해도 조금도 이상할것이 없다. 무엄하게 우리의 최고존엄을 함부로 모독하며 전대미문의 도발을 걸어온 박근혜역적패당은 그 천인공노할 죄악의 대가를 죽음으로 치르어야 한다.

가소로운것은 박근혜역적패당이 저들의 무모한 망동으로 하여 벌어질 사태에 대한 대책도 없이 허장성세하며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는 격으로 살기등등하여 날뛰고있는것이다.

원래 풀기는 개가 요란하게 짖어대고 집정이들이 흰소리를 더 잘 치는 법이다.

괴뢰호전광들의 특대형범죄행위는 적대세력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좌절을 모르고 날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공화국의 힘찬 기상과 전진앞에 절접한 패배자들의 공포심의 발로이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엄혹한 시련을 파감히 뚫고 헤치며 더욱 강해지고 세계적인 핵강국, 우주강국으로 솟구쳐오른 우리 공화국, 세계적인 정치과동속에서도 끄떡없이 위대한 당을 따라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고 선군의 홍대로 백승을 떨치는 우리 공화국의 공고성과 불패성에 적들은 전률하고있다. 무섭게 도약하는 백두산핵강국의 위용에 기절초풍한 괴뢰역적패당은 멸망의 운명을 직감하며 최후발악적몸부림으로 극악무도한 특대형도발행위에까지 매달리고있는것이다.

그야말로 박근혜패당은 안팎으로 궁지에 몰리고있다.

온갖 비렬하고 음흉한 권모술수로 청와대안방을 차지한 박근혜역도는 지난 3년간 남조선의 모든것을 망쳐놓았다. 그 어떤 정치철학과 일가견도 없이 미일상전들에게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인민들의 존엄과 리익을 짓그리 팔아먹은 을사오적을 릉가하는 특등매국노, 히스테리적인 동족대결소동으로 북남관계를 풍지박산낸 극악한 반통일 광신자, 제 애비도 무색케 하는 파쑈폭압통치로 남조선을 민주주의와 인권의 참혹한 폐허지대로 전락시킨 희세의 독재자, 경제와 민생을 최악의 도탄속에 몰아넣은 악귀가 바로 박근혜이다.

이로 하여 역도의 반인민적악정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분노와 원성은 하늘에 탕고있다. 이제는 《태누리당》 패들까지 청와대의 독단과 전횡에 반기를 드는 판이다. 무지무능한데다가 록정밖에 모르는 청와대악녀에게 남조선인민들은 《온 민중을 다 잠이먹을 마귀년》, 《치마두른 쌍패》, 《천하에 보기 드문 지능아 닮그네》, 《악근해》, 《메근해》, 《땍치》, 《동신》, 《깡통》 등 별의별 오명을 다 들씌웠다.

이러다가는 뭘경 4월총선거에서도 망하고 퇴임후 인민들에게 멱살을 잡히여 까마귀밥신세가 될수 있다는것을 직감한 역도는 우리를 겨냥한 광기적인 군사적도발로 국도의 전쟁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분노한 민심의 화살을 딴데로 돌려보려고 발광하고있다.

북남관계를 더는 더 수습할수 없는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넣은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이제 와서는 그 더러운 목숨을 부지해보려고 우리의 최고존엄에까지 함부로 도전하면서 특대형도발행위를 서슴지 않는 만고역적 박근혜는 이제 더는 살아숨쉴 공간이 없다.

최고존엄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치솟는 분노와 끓어오르는 증오심을 안고 무자비한 보복전의 첫 불세례를 박근혜역도가 도사리고있는 청와대에 쏟아부을것이다. 그 무서운 불바다속에서 파연 늙다리마녀 박근혜가 목숨을 건질수 있겠는가.

세계는 미국을 등에 업고 어리석게 날뛰면서 우리의 최고존엄을 함부로 모독한 박근혜역적패당이 어떻게 아우성치며 불타 없어지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라 설 하

이런 산림가정들이 있어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 우거진다

각지 산림가정들에서 발휘된 소행을 놓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애국주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참다운 애국주의입니다.》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라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간곡한 유훈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산림복구전투에 순결한 랑심을 바쳐가는 근로자들의 가정들을 산림가정으로 내세워 온 나라가 알도록 해주시였다.

70년전투로 들끓고있는 때 산림가정이라는 새로운 시대어가 생겨나 온 나라를 격동시키고있다. 내 조국에 산림가정, 애국자가정들이 나날이 늘어나고있는 현실은 령도자와 사상과 뜻과 정을 같이하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해주고있다.

대를 이어 지켜가는 애국의 좌지

산림조성사업은 해를 이어가며 해야 하는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다. 한생을 바쳐도 그 덕을 보지 못할수 있는 이 사업을 대를 이어가며 계속해나가고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애국자들이다.

이런 애국자들속에는 선군시대 금골로자의 영예를 지닌 봉산군산림경영소 오봉리산림책임감독원 박경남동무의 가정도 있다.

사실 20여년전까지만 해도 박경남동무는 제대되여 순천시의 어느 한 기업소에서 일하였다. 그러면 그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너무도 뜻밖에 서거하시였다는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접하고 고향땅의 푸른 숲을 가꾸어갈 결심을 가지게 되였다. 한것은 공훈산림공인 아버지의 빛나는 삶을 이어가는 길이 참된 애국의 길이라는것을 자각했기때문이였다.

아버지의 뒤를 잇자는 그의 호소에 아홉남매와 그 가족들이 호응해나섰다. 그들은 조국이 시련을 겪던 고난의 시기에 고향땅의 푸른 숲에 뿌리내린 산림가정이 되였다.

그들은 맡은 산림초소를 변함없이 지켜나갔다. 그 나날에 이들은 해마다 잣나무와 이깔나무를 비롯한 50여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였으며 2000여정보의 이깔나무림과 540여정보의 잣나무림, 250여정보의 세잎소나무림, 360여정보의 밤나무림을 조성하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까지 3500여정보의 담당산림은 물론 그 주변산들에도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였다.

태란군산림경영소 삼봉리산림감독원 김주철동무 역시 아버지의 뒤를 굳건히 이어 고향땅을 가꾸는데 헌신의 땀을 바쳐왔다. 그는 지난 30여년간을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묵묵히 산림감독원으로 일한 아버지의 애국의 넋을 이어 10여년전부터 790여정보의 산림을 맡아 많은 나무를 정성껏 심었다.

산발을 오르내리느라, 어린 나무모를 키워내느라 힘이 들고 마음이 나약해질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와 그의 가정은 언제나 조국산천을 끝없이 사랑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헌신의 발걸음에 심장의 보폭을 따라세우며 2정보의 잣철림을 조성하였으며 야생밤나무그루에 왕밤나무를 접하는 방법으로 10정보의 산림을 생산성이 높은 밤나무림으로 만들었다.

그뿐이 아니였다. 담당한 100정보의 유용동물보호구에 500여개의 새둥지와 수천개의 소금주머니를 만들어놓아 각종 새들과 리로운 동물들의 서식조건을 보장해주어 고향산천을 아름답게 전변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안변군산림경영소 룡성리산림감독원 한남혁동무도 대학에로의 길을 마다하고 조국보위초소에서 제대된 그길로 아버지가 섰던 산림초소를 꿋꿋이 지켜가고있는 애국자이다.

그의 가정은 지난 20여년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정보의 숲사이나무모발을 번듯하게 꾸려놓고 해마다 창성이잘나무와 잣나무를 비롯한 17만여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였다. 그리고 담당한 1000여정보의 산림에 정성껏 나무를 심고 가꾸어 수림화를 실현하였으며 지난해부터는 400여정보의 산림을 자진하여 더 맡아 관리하고있다.

한생토록 걸어갈 애국의 좌표

애국의 좌표를 신념으로 간직한 사람만이 한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있다.

갑산군산림경영소 회린지수지보호관리분소 산림감독원 서승원동무와 그의 가정을 놓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

서승원동무는 군사복무시절 전투임무수행중 부상을 당한 영예군인이다. 비록 불편한 몸이지만 그는 벌거숭이산들에 좋은 수종의 나무들을 많이 심어 화를 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조국이 주는 명령으로 받아안고 15년전부터 가족과 함께 산림을 가꾸어왔다.

한가정의 행복보다 수령과 조국을 먼저 생각할줄 아는 그였기에 300여정의 땅을 양료장으로 만든데 이어 1500정의 숲사이나무모발도 꾸려놓고 해마다 이깔나무를 비롯한 20여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였다. 그리고 누가 알아주건말건 해마다 산에 나무를 정성껏 심고 가꾸었다. 귀중한 랑조자가 되여준 안해가 중병에 걸려 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서승원동무는 병사시절의 그 정신으로 딸과 함께 1300여정보의 산림을 가꾸고있다.

김형권군산림경영소 과발산림감독분소 분소장 김용대동무와 그의 가정도 산림복구전투승리를 앞당기기 위해 충정과 의리의 자욱자욱을 수놓아가고있다.

당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속에 김용대동무는 주체101(2012)년 5월 국토관리봉동원운동지대회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였다.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자기를 대회에 불러준 어머니당의 그 사랑, 그 믿음에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여서라도 기어이 보답할 자각안고 그는 1정보의 습지대를 양료장으로 꾸릴 결심을 다지였다.

그의 가족까지 떨쳐나섰지만 습지대인탓에 일자리가 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안 먼곳의 친척들까지 이곳에 달려와 양료장 건설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도와나섰다.

양료장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였으며 지난해부터는 여기에서 창성이잘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수십만그루의 합격품나무모가 생산되고있다.

애국의 좌표를 고향땅의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는 사업에 정하고 한생을 바쳐가고있는 산림가정들속에는 태란군산림경영소 기암리산림감독원 리정희동무와 그의 자식들도 있다.

순직한 남편이 섰던 초소에 자신과 3명의 자식들을 세운 그는 나무모는 한약과 같다는것을 명심하고 1정보의 숲사이나무모발을 정성껏 가꾸었다.

힘이 부칠 때마다 그들은 벌거벗은 산들을 보시고 그처럼 가슴아파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생각하며 새 힘을 얻었고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더욱 분발해나섰다. 자기들의 손으로 창성이잘나무모를 비롯한 20여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였을 때 그들의 기쁨은 컸다. 이렇게 생산한 나무모를 590여정보의 담당림에 심어 자기가 사는 고장의 산들을 더욱 푸른 숲으로 우거지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초소는 달라도 애국의 마음은 하나

내 나라에는 초소는 달라도 보석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푸른 숲을 가꾸어가는 길에 한생을 묵묵히 바쳐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그들중에는 농업성 산하단위 로동자 장정남동무의 가정도 있다. 제대되여 고향으로 돌아온 장정남동무는 고난의 시기의 흔적이 남아있는 산들을 보며 랑심의 가책을 받았다. 내가 맡은 일이 아니라고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인 산림조성사업을 외면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정생의 념원이였던 황금산, 보물산을 고향땅에 펼쳐놓는 길에 힘과 지혜를 다 바치리라.

랑심이 가리킨 그 길에 주저없이 뛰여든 그는 안해와 함께 기업소주변과 터밭에 200여정의 나무모발을 풀뜰여 꾸려놓았다. 그리고 코지 않은 이 땅에서 살구나무, 감나무, 대추나무를 비롯한 25종에 6만여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여 주변산들에 정성껏 심었다.

특히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훌륭히 꾸리는 사업에 이바지하기 위해 100여그루의 은행나무를 정성껏 키워 수목원에 보내주었다. 또한 1400여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주요대상건설장과 인민군부대들에 보내주는 애국적소행도 발휘하였다.

순천석회질소비료공장 부원리남철동무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호소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가족과 함께 자기의 일터와 마을을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하는데 순결한 랑심을 바쳐가고있다.

두해전 자진하여 70여정보의 공장담당림을 맡아나선 그는 안해와 함께 공장구내와 숲사이에 1600여정의 양료장을 꾸려놓았다. 그리고 가정에서 마련한 수십t의 질좋은 유기질비료로 지력을 높여 창성이잘나무와 잣나무 등 20여만그루의 나무모들을 키워냈다. 특히 지난해에는 3만 4천여그루의 창성이잘나무모를 자체로 해결하여 10여정보의 담당림에 정성껏 심음으로써 최악의 조건에서도 나무사름률을 90%이상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염주군 옴242인민반에서 살고있는 문병실로인과 그의 가정도 산림복구전투에 떨쳐나 푸른 숲을 가꾸어가고있다. 그는 80살을 카까이하고있는 년로한 몸이지만 산림복구전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선포한 당의 호소에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화답해나서야 한다고 하면서 군산림경영소에 찾아가 2000여정의 산림토지를 맡아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생산할 결심을 터놓았다. 그리고 어려 직종에서 일하던 2명의 딸과 사위들로 양묘분조를 꾸리고 돌추기와 지름길어내기 등을 진행하여 지력을 높이는 한편 80여kg의 나무종자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고 튼튼한 나무모를 키워내는데 정성을 바치였다. 그리하여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8만여그루의 단풍나무와 비슬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생산하는 애국적소행을 발휘하였다.

자강도체육국 강계경기장관리소 로동자였던 함성철동무도 숭고한 애국심을 지니고 지난해에 6명의 동생을 포함한 가족 31명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 업적이 깃들어있는 오가산지역보호구관리소에 집단전출하여 양묘작업반을 조직하고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다.

이밖에도 신천군 복우협동농장 조림분조장 현태파, 장풍군산림경영소 성산지구산림감독원 류시옥, 이천군산림경영소 문동리산림감독원 김형식, 경성군산림경영소 양묘공 지명숙동무의 가정들도 순결한 랑심을 바쳐가며 푸른 숲을 가꾸어가고있다. 사람들은 이런 그들을 산림가정, 애국자가정이라고 사랑과 정을 담아 부르며 떠받들고있다.

하루빨리 조국의 모든 산들을 푸른 숲 우거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당의 뜻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발휘된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애국적소행은 당의 명도를 깨끗한 충정과 의리로 받들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정신세계의 발현이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에 깨끗한 랑심을 바쳐가는 산림가정, 애국자대렬이 늘어나고있는 현실은 내 조국의 또 하나의 크나큰 기쁨이고 자랑이다.

본사기자 주 창 일

정의의 선제타격전은 도발적망동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식이다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인 조선반도에서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핵시험전쟁강행으로 사태가 최악의 핵전쟁발발국면에로 치닫고있다.

우리 혁명무력은 적들이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엄중히 침해하고 피를 물고 덤벼드는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여 무자비한 섬멸적타격을 가할수 있게 선제공격적인 군사적 대응방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적들이 선제공격을 노리고 핵전쟁도발에로 나오는 이상 우리의 군사적대응조치도 보다 선제적이고 보다 공격적인 핵타격전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무엄하게도 우리 공화국의 《체제붕괴》를 노린 원쑤들의 도발적망동에 우리가 무자비한 초강경으로 대응하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자위권행사이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지금까지 상투적으로 써오던 《연례적》이며 《망어적》이라는 허울마저 완전히 벗어던지고 벌리는 가장 로골적이고 가장 악랄한 사상최대규모의 북침핵전쟁연습이다. 우리 공화국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경제적으로 질식시켜보려는 불법무법의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가 조작된데 이어 강행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도발적성격은 더욱 짙다.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고 고립시키며 군사적공격을 가하기에 앞서 미국은 언제나 자들의 행위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모략선전을 선행시켜왔다. 《독재》요, 《인권》이요 하는 비당중상물에 이전 유고슬라비아와 리비아를 공습하였다. 그들은 주권국가들에 압력을 가하고 국제적인 제재조치를 취하며 군사적으로 침공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하여 《대량살육무기위협》설을 퍼뜨리기도 하였다. 이라크침공에 앞서 미국은 《이라크에 대량살육무기가 있다. 미국과 세계에 대한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고 요란하게 떠들어댔다. 이처럼 지짓선전공세를 펼쳐 여론을 몰아가다가 전쟁을 일으켜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대량살육무기를 파괴한다는 구실밑에 주권국가를 전복하는것은 미국의 상투적수법이다.

적들이 우리의 자위적억제력을 시비하다 못해 평화적위성발사를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로 몰아 유엔《제재결의》라는것을 조작하고 《인권문제》까지 거들어놓은 상태에서 불장난을 벌리는 목적이 선제타격의 명분을 쌓자는데 있다는것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수 있을것이다.

미국은 세계도처에서 련중 전쟁연습을 그칠새없이 벌리지만 남조선에서처럼 방대한 병력을 동원하여 벌리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에 거의 모든 3대전략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지역에 전개하고 살인악마의 무리로 악명을 떨친 륙해공군의 특공대작전집단과 강습상륙집단까지 공개적으로 들이밀었다. 합동군사연습에 미제침략군의 초대형핵항공모함타격집단을 비롯하여 지상, 해상, 공중핵타격수단들이 대망 투입되고있다.

《힘의 만능론》에 사로잡혀 상대를 놀래우기만 하면 벌써 절반은 이긴것이라는 전쟁론까지 내돌리는 미호전광들이 전쟁도 아닌 군사연습에 웅근 하나의 전쟁을 치를수 있는 대병력을 동원하는것은 그저 스쳐보낼 일이 아니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에서 호전광들은 전략폭격기와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미군의 전략핵타격수단들이 조선반도까지 도착하는 시간을 측정하고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훈련을 반복하는 놀음을 벌리고있다. 헤이다갈시망을 돌고 후망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 지하구조물들을 파괴할수 있는 스텔스폭격기들이 전쟁연습을 앞두고 조선반도와 가까운 일본에 예고도 없이 날아들었다. 이 스텔스폭격기들이 조선반도《유사시》 우리의 핵과 미싸일기지에 대한 《정밀타격》을 목적으로 하고있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 전개되는 무장장비들만 보아도 그것이 선제공격을 노리고있다는것은 명백하다.

폭침을 가상한 《작전계획》은 선제공격을 노린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성격을 더욱 선명히 드러내보여주고있다. 미국과 괴뢰들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목적이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노린 《참수작전》과 전략적 요충지들을 불의에 점령하기 위한 기습상륙작전, 우리의 핵타격수단들에 대한 선제타격작전 등의 실전가능성을 확정하는데 있다고 내놓고 광고하고있다.

올해에 처음으로 적용된다고 하는 우리의 핵, 미싸일타격수단들과 함께 그 지휘부까지 선제타격한다는 작전계획자체가 전쟁도발을 기정사실로 하고있다.

그 누구의 공격기미를 《탐지》하면 자들이 선제타격하겠다는것은 임의의 순간에라도 전먹지를 만들어 전쟁을 도발하겠다는것이나 같은 소리이다.

지금까지 미국의 전쟁사는 바크보만사건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상대가 자기를 먼저 공격하였기때문에 자기가 후에 전쟁에 말려든것처럼 되여있다.

력대 제국주의자들은 전쟁도발전야에 자기 군대를 상대편군대로 가장시켜 자들을 《공격》하게 하거나 자기 기지가 상대편에 의해 파괴되였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해 제손으로 자기의 인적, 물적자원을 《파괴》하기도 하였다. 적들이 핵시험전쟁을 벌리면서 지난해 8월에 조작한 《지뢰도발》파 같은 모략사건을 꾸며내든가 우리의 공격기미를 《탐지》하였다는 허튼 선전을 내돌리면서 선제공격에로 나오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

사실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무력전개로부터 작전수행에 이르기까지 모두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의 선제공격방법에 의한 전면전쟁을 노리고있다.

력사에는 전쟁이 언제 어느날 어데서 시작되는가 하는것을 제때에 정확히 관별하지 못하고 선제공격에 대처하지 못하여 전쟁초기에 돌이킬수 없는 결정적인 타격을 받은 실례들이 적지 않다. 가까운 실례로 페르샤만전쟁때 이라크는 미군주도의 다국적군이 언제 어느날 전면공격을 개시할것인지 정확히 관별하지 못하여 전쟁의 운명이 결정된 첫시작에 벌써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그들은 다국적군이 강력한 전자장애를 피고 무차별적인 공습과 해상으로부터의 순항미싸일공격을 위주로 중요지휘소들, 로케트기지, 비행장, 통신시설과 전략적거점들, 도로, 다리 등을 혹심하게 철저히 파괴함으로써 앉은자리에서 녹아났다.

미국의 선제공격에 얻어맞고 뒤에 돌아서서 아무리 항변해야 그것은 이미 때가 늦다.

세계곳곳에서 감행되는 미국의 침략전쟁책동에 대처하지 못하여 주먹으로 눈물을 씻는 나라들의 처지가 시사하는바는 크다.

과연 우리가 미국의 핵선제공격을 노린 전쟁연습을 수수방관할수 있겠는가.

가장 적극적인 방어는 공격에 있다. 미국이 불의의 기습공격으로 우리를 제치려 하고있는 조건에서 그것을 무력화시킬수 있는 길은 선제타격밖에 없다.

선제타격은 이제 더는 미국의 독점물이 될수 없다.

오늘 미국이 획책하는 핵전쟁소동은 집요하게 감행하여온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절정이며 마지막도박이다.

미국의 끈질긴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력은 나날이 강화되고있다. 특히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우리의 무진막강한 국방력에 원쑤들은 전률하고있다.

이로부터 미국은 합동군사연습을 계기로 막대한 무력이 집결되여 실전연습을 벌리는 기회에 어떻게 해서나 핵선제공격을 시도해보려고 피하고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지역들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은 통할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통할수 없다.

미국은 상대를 똑바로 보고 덤벼들어야 한다.

침략과 전쟁을 업으로 삼고있는 미국이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벌려왔지만 그것은 사실상 상대도 안되는 《적》과의 군사놀이와 같은것이였다.

미국의 군사적개입 또는 전쟁준칙에는 지역적충돌위기나 정치적 및 외교적수단으로써는 효과가 없을 경우, 작은것을 잃고 큰것을 얻을수 있을 때, 미국의 리익이 침해당한다고 볼 때, 군사적목적을 달성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때 전쟁에 뛰여드는것으로 되여있다. 새 세기에 들어와 감행된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은 이 전쟁준칙에 따라 벌어졌다. 이것들은 다른 나라를 전쟁마당으로 하여 벌어진것들이였지 본토에는 포탄 한발 떨어지지 않았다.

진짜전쟁맛을 보지 못하였다고 볼수 있다.

침략자들은 진짜전쟁맛이 어떤가를 조미대절에서 보게 될것이다.

1990년대 조미핵대결시 미국은 조선과의 전쟁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겠는가 하는것을 콤퓨터에 의한 모의전쟁을 통해 알아본바 있다. 콤퓨터는 전쟁개시 2주일만에 우리가 전전선에서 종심까지 진격하여 미군 40여만명을 피멸시키고 승리할것이라는 답을 냈다. 미국측 물적손실액은 무려 800억US$에 이를것으로 산출되였다. 그것도 미군의 병력과 무장, 작전전술적기도 등은 당사자들이 정확한 수자를 넣었으나 우리의 경우엔 가지고있는 무력과 활용할수 있는 작전전술적능력에 대해서는 거의나 알지 못하고있기때문에 추상적인 수자 등을 콤퓨터에 입력시켰을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2주일만에 그처럼 참담한 섬멸적타격을 받고 대참패를 당한다는데 대하여 적들은 경악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핵무기를 들어쥐기전의 일이다.

우리는 빈말을 모른다.

우리는 미국이 강요한다면 재래식전쟁이든 핵전쟁이든 다 응해줄 준비가 되여있다.

핵선제타격권은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미국은 본토에 대한 핵공격이 더는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똑바로 알 때가 되였다.

선제타격에는 더 앞선 선제타격으로!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침략과 전쟁으로부터 사회주의조국을 철옹성같이 수호할수 있는 주체의 군사적대응방식이 있다. 가소로운 군사적 광기에 대처하여 기존군사적대응방식을 선제공격방식으로 전환한 우리 혁명무력의 모든 작전집단들은 적들이 움찍하면 그 즉시 무자비한 섬멸적타격을 가할 만단의 태세에 진입한 상태에 있다는것을 미국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신성한 령토, 령공, 령해에 대한 침략기도가 관단되는 즉시 침략작전에 투입된 병력과 수단들이 기동하기 전에 군사적으로 단호히 제압소탕해버릴것이다. 우리의 무자비한 선제타격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영영 사라져버리고말것이다.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진막강한 군력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리 현 도

조선의 자위적조치들을 지지한다

로씨야에서 련대성집회 진행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가 얼마전 로씨야의 나호드까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에는 로씨야련방공산당 연해변강 나호드까시위원회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공대성명이 소개되였으며 이어 연설들이 있었다.

로씨야련방공산당 연해변강 나호드까시위원회 제1비서 겐레노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미국이 남조선과 추종국가들을 동원하여 강행하는 합동군사연습은 전례없는 침략적성격을 띠고있으며 이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극도로 격화되고있다.

우리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업을 받들어 일심단결로 모든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가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다.

로씨야련방공산당 연해변강 나호드까시위원회 비서 체르니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 의하여 날조된 불법무도의 《제재결의》와 조선반도에서 강행되는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에 대응하여 조선이 취한 자위적이며 단호한 조치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영국정당기관지 글 게재

영국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기관지 《라인 오브 마위》 3월호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규탄하는 글들을 실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호하는것은 국제적의무, 공화국을 고립시키려는 히스테리적망동을 반대하자》라는 제목의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의 자위적인 수소탄시험과 정화적인 위성발사를 구실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유엔안보리사회에서 《제재결의》를 조작하였다.

미제의 모든 책동들은 조선의 제도를 무너뜨리자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미제는 세계의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서 사상최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을 벌리고있다.

조선의 자위권은 그 누구도 빼앗을수 없다.

세계 진보적력량은 미제의 전쟁책동을 반대하여 조선인민과 함께 어깨걸고 싸워야 할것이다.

스위스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중대보도를 지지하여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3월 23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미제와 친미역적 박근혜패당의 무분별한 군사적도발망동이 극한계선을 넘어서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중대보도를 발표하였다고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인민군을 비롯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무력은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남조선 전지역을 해방하고 친미역적패당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필승의 의지에 넘쳐있다.

우리는 조선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중대보도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미제와 박근혜패당의 범죄적인 전쟁책동을 준렬히 규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존엄보위전에로!

【조선중앙통신】

로 씨 야
《핵안전수뇌자회의》 참가 거부

【모스크바 3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로씨야대통령공보판이 3월 30일 따쓰통신파의 회견에서 로씨야는 미국에서 진행되는 《핵안전수뇌자회의》에 참가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핵안전문제는 서로의 리익과 립장을 고려하여 모든 공동의 노력에 의해 해결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로씨야정부는 수뇌자회의문제와 의제들을 초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호상협력이 부족하다는것을 인식하였으며 때문에 그 회의에 참가하지 않을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일것을 호소

한자니아대통령 존 마구풀리가 3월 27일 한 종교행사에서 연설하면서 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일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외국의 조건부적인 대부에 계속 의존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한자니아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자기 힘을 키워야 한다고 말하였다.

최근 정부가 취하고있는 조치들은 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교육부문 등을 개선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모두가 정부의 노력에 합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

결핵방지노력

담아프리카가 결핵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3월 22일 정부는 지난해 결핵방지계획에 따라 진행된 주민들에 대한 결핵검진깜빠니야파정에 약 5 000명의 결핵환자들이 발견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 2년동안 전국적인 검진을 통하여 결핵환자들을 빠짐없이 장악하며 그들에 대한 치료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한다.

이 란 에 서 나 무 심 기

협조

파키스탄과 스리랑카가 3월 23일 정치, 경제분야에서 쌍무협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앞서 3월 22일 까타르와 부르끼나 파쏘는 두 나라사이의 령공개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나이제리아와 적도기네가 3월 15일 해상안전을 강화하는데서 협조할데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최근 케냐이와 에티오피아는 인신매매행위를 방지하고 두 나라사이의 무역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원유탐사활동

페루아에서 원유탐사활동을 강화하고있다.

3월 16일 이 나라 정부는 북부지역에서 약 8억bbl의 원유가 매장되여있는 유전이 발견되였다고 밝혔다.

나라에서는 최근 여러개의 다른 원유매장지들도 발견하고 현재 그 매장량을 측정하고있다고 한다.

엘니뇨현상에 의한 세계적인 식량위기

엘니뇨현상은 일반적으로 페루앞바다를 기본으로 태평양적도부근의 물온도가 5-6개월정도 정년보다 0.5℃ 이상 높아지면서 생기는 자연현상이다.

이미 동태평양의 물온도는 2.6℃ 상승하여 이번 엘니뇨현상이 수십년만에 가장 강한것으로 될것이라는 판측이 나오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원래 엘니뇨라는 이름은 동태평양의 물온도상승으로 멸치가 많이 늘어나 행운이 차례진다는 의미에서 붙여진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이 자연현상은 인류에게 행운이 아니라 그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식량위기를 몰아오고있다.

최근 엘니뇨현상으로 세계각지에서 태풍과 폭우, 큰물과 가물을 비롯한 혹심한 자연재해가 초래되고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무엇보다도 농업부문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다.

아시아나라들에서 엘니뇨현상으로 인한 가물로 알곡생산이 현저히 줄어들고있다.

웰남에서는 19만 5 200세대가 물부족을 겪고있으며 15만 9 000ha의 논에 심은 벼가 못쓰게 되였다. 앞으로 50만ha의 논이 또 위험에 처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전국적으로 20만ha이상의 논에 물을 대지 못하였으며 그중 3만ha에서는 수확을 전혀 기대할수 없게 되였다 한다.

필리핀에서 지속된 가물과 태풍으로 많은 농경지들이 못쓰게 되여 지난해 4.4분기에 농업생산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만마에서는 지난해에만도 3만개이상의 양어장들이 파괴되였다.

아프리카에서도 가물로 식량사정이 더욱 악화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남부아프리카지역에서 식량부족으로 기아에 직면하게 될 주민수가 1 590만명에 달할것으로 예상되고있다.

특히 남아프리카에서는 23년이래 최악의 가물로 지난해 3.4분기에만도 농업생산이 그 전해의 같은 기간에 비해 16.2% 줄어들었다 한다.

동아프리카나라들에서도 올해에 감냉이를 비롯한 알곡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많은 면적의 농경지들이 류실되여 3 210만명이 극심한 식량난을 겪게 될것이라고 한다.

세계식량계획은 아이띠를 비롯한 까리브해연안지역 나라들이 엘니뇨현상의 영향으로 심각한 가물피해를 입고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그 후과로 농업생산이 떨어져 식량가격이 폭등한다면 사람들의 경제생활이 더욱 어렵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전문가들은 올해에 엘니뇨현상이 더욱 심화될것이 예견되는것과 관련하여 모든 나라들이 그로부터 초래될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호소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규탄배격받는 미국

도이췰란드의 약 80개 지역들에서 3월 26일 미국의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들이 일제히 벌어졌다.

시위들에는 수많은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반테로》의 미명하에 수리아, 이라크와 같은 나라들에서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참혹한 피난민위기가 초래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전쟁은 테로이다》, 《전쟁을 당장 중지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전쟁과 무기판매를 당장 중지할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 ※

일본 오끼나와현의회가 3월 22일 주일미군의 범죄적만행에 항의하는 결의와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결의와 의견서는 미해병대 사병이 지난 3월 13일 한 려관에서 일본인녀성에게 달려들어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한것은 지금까지 주일미군이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있기때문이라고 비난하였다.

현의회는 항의결의와 의견서를 일본당국과 미국정부, 미군 그리고 범죄자가 소속되여있는 기지와 현내에 있는 모든 미군기지들에 보내기로 하였다.

※ ※

이란의무성 대변인이 3월 26일 자기 나라 공민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미국의 파렴치한 행위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최근 미사법성이 이른바 해킹공격혐의로 7명의 이란공민들을 기소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미국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다른 나라 공민들을 기소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는 오히려 이란의 민간핵시설들에 대한 싸이버공격으로 환경은 물론 수백만명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장본인은 바로 미국이라고 규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아 르 헨 띠 나 에 서 반 미 시 위

평화를 파괴하는 인류의 원쑤 (3)

국가테로의 왕초 미국의 범죄행적

세계곳곳에서 테로공포증이 만연하고있다. 하늘과 땅, 바다에서 날로 더욱 잔인한 방법으로 련이어 감행되는 테로행위들을 놓고 사람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오늘날 테로는 21세기의 《흑사병》으로 치부되고있다.

지난 시기 불순한 목적실현을 위해 개인들에게 감행되던 테로가 현시기에 와서 사람들을 전률케 하며 세계를 불안과 공포속에 몰아넣는 행위로 되고있는것은 누구때문인가.

미국때문이다.

미국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테로행위들을 감행하면서 그것을 더욱 조장시키고있는 테로의 원흉이다.

미국은 생겨날 때부터 전형적인 테로국가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다. 플럼부스의 아메리카대륙발견후 탐욕으로 끓는 거리는 야망을 안고 쓸어들어온 양키의 조상들은 저들을 따뜻이 대해준 인디안들에게 배은망덕하게도 집단대학살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종족테로, 집단테로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야만적인 테로와 살육으로 광대한 령토를 차지한 살인귀무리들은 로동력이 모자라자 또다시 테로의 방법으로 수많은 흑인들을 저들의 노예로 만들었으며 그들의 피땀으로 미합중국이라는 《인간대혼합탕》국가를 빚어냈다.

미국의 극악하고 잔인무도한 테로범죄의 력사는 성조기에 그대로 비껴있다.

오죽했으면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이 침략행적과 피에 젖은 성조기를 두고 《흰 줄은 검은 줄로 물들어야 하고 별들은 두개골과 두개의 뼈를 가로놓은 그림으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하였겠는가.

미국은 제국주의우두머리의 지위를 차지한 후 테로왕국으로서의 자기의 본색을 로골적으로 드러내고 도처에서 테로행위들을 공공연히 감행하였다.

미국의 테로범죄행위들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것은 국가테로이다. 미국이 벌린 침략전쟁들은 명백히 해당 나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국가테로행위이다.

1950년대의 조선전쟁때 저들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해 《남침기습설》을 떠들며 유엔무대에서 우리 공화국을 《도발자》로 규정하고 침략전쟁을 일으킨 사실에 대해서는 세계가 알고있다.

1960년대에 웰남에서 일어난 바크보만사건도 미국이 해당 나라들에 대한 국가테로를 감행할 때 어떤 상투적수법을 쓰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당시 북부웰남에 대한 침략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합당한 명분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미국은 미리 짜놓은 계획에 따라 수십대의 비행기와 구축함 《매독스》호를 웰남의 바크보만에 침입시켜 무장도발을 감행하게 하였다. 미제침략군의 도발적인 함포사격과 기관총사격에 웰남군대가 자위적대응을 하자 미국은 기다렸다는듯이 파렴치하게 놀아댔다. 미국은 전세계에 대고 북부웰남이 공해상에 있는 저들의 함선을 《공격》하였다고 떠들어대면서 망대한 무력을 들이밀어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던것이다.

이것은 저들의 순양함 《메인》호를 제손으로 폭파하고 그 책임을 에스빠냐에 넘겨씌워 첫 제국주의전쟁을 도발한 옛 수법 그대로였다.

흑백을 전도하는 날강도적인 수법들로 미국은 지난 세기에 《미국인보호》, 《민주주의회복》, 《소수민족보호》, 《인권옹호》 등 각종 명목밑에 그레네이더와 빠나마에 대한 무력침공, 이전 유고슬라비아전쟁 등 침략전쟁들을 끊임없이 벌려 주권국가들에 대한 국가테로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미국의 침략책동은 새 세기에 들어와서 더욱 교묘해지고 악랄해졌다.

2001년 9.11사건이 터지자 미국은 세계에 《반테로전》을 선포하고 테로분자들을 《소탕》한다고 하면서 해당 나라와 지역들에 저들의 침략무력들을 들이밀었다.

《반테로전》의 후과는 너무나 컸다.

미국이 운운하는 테로분자들에 대한 《소탕》이 주권국가들에 대한 테로로 이어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등 많은 나라들이 쑥대밭으로 전변되였다.

《반테로전》의 대상으로 된 나라들에서 테로행위들이 성행해져 세계는 더욱 몸살을 앓게 되였다. 분할하여 통치하라는 궤변밑에 미국이 해당 나라들에 이미 존재하던 민족간, 종족간 알륵을 더욱 조장시켰던것이다.

이라크와 리비아 등 《반테로전》의 대상으로 된 나라 사람들은 미국의 부추김과 꼬임에 넘어가 정치세력간, 교파간, 종족 및 민족간 싸움을 벌렸다. 지난날 한개 국가를 이루고 살던 그들이 서로를 헤치는 무장테로조직들을 내오고 류혈싸움을 벌림으로써 국가는 분렬되고 많은 사람들이 피난민의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다른 나라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여 저들의 목적을 이루는데서 재미를 본 미국은 알륵과 갈등을 조장시킬수 있는 나라라면 한사코 끼어들고있으며 갖은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하여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마당으로 전변시키고있다.

수리아문제가 바로 그러하다.

미국은 몇년째 내전이 계속되는 수리아에서 《이슬람코국가》라는 국제테로조직이 활개치자 그에 대한 《소탕》을 구실로 이 나라 내정에 간섭해나섰다. 수리아정부의 승인도 없이 미국은 테로분자들에 대한 《공습》이라는 구실밑에 수리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있다.

한편 아싸드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국제적여론과 암박의 공세를 펴면서 반정부세력들을 비호두둔하고 긁어모아 훈련시켜 대결에로 부추기고있다. 어떻게 해서나 반미적인 수리아에 대한 국가테로를 단행하여 저들의 목적을 이루자는것이다.

빈 라덴을 잡는다고 하면서 시작된 미국의 《반테로전》이 그가 죽은 후에도 막을 내리지 않고 오늘까지 계속 이어져오고있다. 이것은 세계를 테로와 보복의 수라장으로 만들어 일국세계를 만들려는 미국의 야망이 걸코 변하지 않았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반테로전》이야말로 진짜 국가테로범죄, 세계를 소란스럽게 만드는 반인륜적범죄책동이라고 규탄배격하고있다.

미국은 국가테로의 왕초, 평화파괴의 주범이다. 테로의 원흉 미국을 들어내지 않는 한 이 행성우의 공고한 평화는 절대로 이루어질수 없다.

김 국 철

국제체육단신

◇ 국제축구협회리사회 제130차 년례총회가 최근 영국에서 진행되였다.

개정된 경기규정에 의하여 경기시작때 오직 앞방향으로만 차면 공을 임의의 방향으로 찰수 있으며 노란딱지 및 빨간딱지처벌을 받을수 있는 반칙동작에 의해 부상을 입은 선수는 경기장밖으로 나가지 않고 경기장안에서 신속히 의사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수 있다.

또한 《3중처벌》(11m벌차기구역에서 반칙을 한 선수의 퇴장, 11m벌차기선언, 다음경기출전금지)제안을 승인하였으며 2년간의 시험기간 세계적으로 실행하기로 하였다.

경기대회나 련맹전에서의 연장전에서 네번째 교대선수를 출전시키는 문제를 시험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 2016년 20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 공식상징물과 구호가 최근 과푸아 뉴기니아에서 공개되였다.

상징물은 20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의 공식우승컵의 모양을 형상하고 도안과 색깔요소들을 통해 과푸아 뉴기니아의 유산과 자연을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이 나라의 문화와 경기대회를 련결시켜주고있다.

구호 《고무하라, 풍가하파》는 이번 경기대회를 남녀평등을 추동하는 계기로 만들려는 목적을 반영하고있다고 한다.

경기대회는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된다.

【조선중앙통신】

ㄱ-61053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373-0263, 농업부373-5628, 과학교육부372-4628, 조국통일부372-4882, 국제부373-4728, 사진보도부373-0712, 특파기자부372-4328.

편 집 위 원 회